

# C O N T E N T S

통합 의료원보 Vol. 3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표지설명

국내 최초로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SU-III) 구축으로  
순천향 4개 병원이 유비쿼터스 디지털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빠른 전산정보망으로 표현하였다.  
작가 · 박승희



## Feature

- 02 Special 1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SU-III) 구축
- 08 Special 2 감동스토리\_ '나를 살린 순천향'
- 10 Issue 1 환자중심의 혁신 실천하는 서울병원
- 12 Issue 2 사랑받지 못한 부모가 아동학대 부른다
- 14 Focus 1 부천병원, 초저선량 3차원 입체 뇌혈관조영기 가동
- 16 Focus 2 천안병원, 신개념 암치료법 '온코써미아 온열암치료'

## Confidence

- 18 History 후학·지인들, 서석조 박사를 말하다
- 20 Special Family 정영희 서울병원 수간호사
- 22 Field 병원 24시\_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26 Doctor 김성용 천안병원 외과 교수
- 28 New Medicine 1 인공와우이식 첫 수술
- 30 New Medicine 2 경인지역 최초 인공중이(보청기) 이식술 성공
- 32 New Medicine 3 갑상샘 자극 호르몬 주사요법
- 34 Knowledge 1 선천성 갑상선저하증
- 35 Knowledge 2 초미세먼지 '디젤 분진'
- 36 Knowledge 3 성인예방접종 종합 가이드
- 37 Knowledge 4 뇌졸중 예방과 응급치료
- 38 Visit 최태운 의대 학장(순천향의대 1회)
- 39 OB news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 40 Food Column 박태균 기자의 푸드 & 메드

## Communion

- 42 Essay 이세돌 9단 부인과 딸이 전하는 '딸바보 갓세돌' 가족 이야기
- 44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 Communication

- 46 News 순천향 뉴스
- 50 Schedule 진료 일정표
- 53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 <순천향> 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과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TEL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 국내 최초 의료원 통합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SU-III) 구축

병원 바깥에서도 환자 상태 파악 가능

## 숫자로 보는 SU-III

- 1**  
1시간 이상 무정전 가동
- 17,000**  
1일 접속 사용자 수
- 3**  
진료 데이터 보호 3단계 감시
- 20,000,000**  
1일 접속건수
- 20TB**  
4개 병원 데이터 통합 사이즈
- 720**  
교수(전문의료진)
- 456m<sup>2</sup>**  
통합정보센터 공간
- 5,700**  
직원 수
- 500Mps**  
4개 병원 초고속 통신
- 122,000**  
연간 입퇴원환자 수
- 6,000**  
사용 단말기 수
- 2,200,000**  
연간 외래환자 수



부천병원(2015년 4월)을 시작으로 서울병원(2015년 11월), 구미병원(2016년 1월), 천안병원(2016년 3월)이 오픈됨으로써 순천향대 4개 병원을 아우른 차세대통합의료정보시스템(SU-Ⅲ)이 본격 운영을 알렸다. 이로써 순천향대병원은 종이 없는 진료 차트, 환자는 진료카드만 들고 각 과 협진 가능, 필름·CD 등의 불필요, 원격진료가 가능한 미래형 병원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조차 사려로 꼽히는 쾌거로 명실공히 21세기형 디지털 병원임을 내외에 널리 알린 것이다.

특히 SU-Ⅲ시스템은 ①환자 중심의 의료 혁신 ②개인별 맞춤치료(Personalized Medicine) ③유전자 정보의 질병 예방 ④E-Patient의 헬스3.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순천향병원이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미래형 병원' 분야에서 국내외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병원이란?**

병원 및 의료기관 내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의료정보 서비스와 디지털장비, 기기들을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을 말한다. '열린 병원' 및 '헬스3.0'이 접목된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개방형 병원이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낮은 비용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모놀화가 특징이다.

**초고속 의료정보망 SU-Ⅲ**

SU-Ⅲ(Soonchunhyang U-Unification·Upgrade·Ubiquitous)는 중앙의료원과 4개 병원의 통합시스템으로, 유·무선 모바일과 웹 기반의 통합 DB 및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One-Source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임상지식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진료환경 개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SU-Ⅲ 통합 이후 기대 효과**

01  처리 속도 향상	02  서버 안전성 확보	03  처방 발행 근거 투명	04  병원이용 증가
05  환자 수 증가	06  장비가동률 증가	07  환자 동선 개선	08  수익성 증가
09  예약부도율 감소	10  대기시간 감소	11  연구자료 제공	12  최적CP 제공

**SU-Ⅲ와 소통**

환자 만족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과 존스홉킨스 병원의 경쟁력은 소통에서 나온다. 소통(疏通)은 열린 정보다. 소(疏)는 막힌 것이 트이다. 서투르다, 멀다, 친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 소통은 다른 너와 나를 뚫고 흐른다는 것이니 쉬울 턱이 없다. 까칠하게 통하는 것이다. 핵심은 질문이다. 묻고 대답하고 다시 묻다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얇이 진짜 지식이 된다. 바로 메타데이터다. SU-Ⅲ는 순천향대병원만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 SU-Ⅲ 출범으로 환자만족도 제1위 병원의 목표 달성이 훨씬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느끼는 5대 효과

# 모바일과 사물인터넷(IoT) 활용, U-Healthcare 완성

SU-III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상에서 일상생활의 건강 안심 관련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환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놓고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쓰는 순천향대병원만의 U-Healthcare를 완성하는 것이다. 병원 바깥에서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시될 원격진료 분야에서도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됐다.

1



환자 만족도  
중심의  
의료서비스

-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진료 가능
- 종이 없는 진료 차트
- 환자는 진료 카드만 들고 각 과 협진 가능(환자들의 동선 축소)
- 서울·천안·구미·부천 등 필요시 전문 과목으로 신속 이송
- 검사 스케줄 연계를 통한 환자 편의 및 생산성 증대
- 메르스 등 감염병의 경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로 진료 연계를 통한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2



임상·연구·  
경영의  
디지털 병원

- 간호기록, 통합기록조화와 묶음 처방 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 중앙의료원과 산하 4개 병원의 시스템 통합으로 환자 진료 최적화 모델 구축
- 진료 및 임상연구, 경영효율 극대화
- 친구 같은 의사로 ‘사람 향기 나는 첨단 디지털 병원 구현

3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FULL EMR 도입으로 환자나 의료진의 진료 내용이 투명해지고 객관화
- 변화하는 의료정보 환경에 부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의사와 간호사 등은 모바일 또는 태블릿, 태블릿 PC 사용
- 담당의사가 진료실에서 입력한 내용은 고속통신망을 통해 병원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어느 곳이든 확인 가능
- 진료 관련 절차 및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확인을 통해 진료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진료와 원무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 향상
- 원무 보험 등의 업무가 순차적으로 자동화되어 업무 편의 증가
- 순환근무 시 진료환경 통일로 업무 효율 증가



통합정보센터(IDC) 내부

**4**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의료서비스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선도
- 의료정보의 통합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연구 기반 마련( 빅데이터 구축)
- 원가산정, 통합경영관리 등 다양하고 표준화된 경영지표가 적시에 제공
- 진료, 행정 업무에 대한 표준화, 중복 업무 통합 등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 병원별 특성을 고도화 하고 고부가가치 혁신 유도
- 집단 지성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임상, 연구에 기여

- 국내 최초의 21세기형 디지털병원 선도 및 표준화 모델
-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순천향의생명연구원의 3원 헬스네트워크 완성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진료환경 변화, 글로벌 의료환경 및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기반 시스템 구축
- 국가, 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표준화 기술로 제시

**5**  
대한민국  
의료법인 1호의  
자부심과  
미래 창조 선도

**순천향  
Health System**

순천향대학교(의과대+의료과대학)  
10개 학과, 2,000여명

교육  
인프라

임상연구 중심  
병원

순천향대병원(4개 부속병원)  
3,000여 병상, 5,700여 의료진 및 직원

R&D  
(중개연구)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아시아 제일의 중개연구기관  
(3대 질환-대사질환·퇴행성질환·줄기세포)

대형상급병원 및 국가의료정보시스템의 표준 모델로 주목

# 순천향대병원만의 의료솔루션으로 글로벌 도약 기대

3,000여 병상을 갖춘 대형상급병원의 통합에 따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SU-III 구축이 U-Hospital 측면에서 의료계의 표준화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향후 병·의원급 협력병원까지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유비쿼터스 순천향대병원'의 위상이 탄탄해지게 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하게 된다. 황경호 중앙의료원장은 "모바일 연계 및 스마트 의료정보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 솔루션을 상품화하여 한국형 병원 턴키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진정한 돌봄이 조직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인간 사랑'의 무한 실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자 기초정보 관리 체계 구축

처방, 진단 스마트 검색

투약이력 시계열 조회(Medication Profile)

진료일 기준 전후 2주간의 채혈 검사 일괄 처리

모든 의료장비의 연동(CDIS)

통합진료기록 체계(표준용어, 서식 통합)

처방과 기록의 상호 연동

발급, 제증명 처리, 연관 검사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기반 시행 실명제 실시

환자 안전요건(낙상, 욕창, 삼관 등)의 철저적인 준수

병원 인증 평가 요건 강화(다학제 Care Plan 등)

전 간호과정(사정, 진단, 중재,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한 화면에서 검사 예약과 시행절차, 사본)



SU-III의 향후계획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영 및 연구지원 시스템(원가, EIS, CDW 등)이 오픈된다. 또 ISMS 정보보안인증 구축 사업 및 홈페이지,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순천향대병원 협력병원들에게 SU-III 시스템을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부분 데이터마이닝이 가능한 주제별 연구가 가능한 형태의 CDW도 고도화를 진행하게 된다. 

Interview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

“  
호텔 같은 서비스,  
‘알파고’ 같은  
정확한 진료를 향해서!”



순천향대 병원만의 '디지털병원' 구상 초기부터 관여하여, 6년여 간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출범시킨 황경호 중앙의료원장은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합을 이뤄낸 의료원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 전환 미비로 중단 위기까지 몰렸지만, 순천향대 병원 가족들이 미래형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싶다는 열망이 기필코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는 치열한 토론과 검토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가슴 뭉클한 경험을 겪었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거듭 했다.

디지털 병원의 핵심은 융합(컨버전스)이다. 융합은 1+1=2가 아닌, 하나와 하나가 결합해 새로운 것을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각자의 성격을 고집하기 보단 새로운 서비스나 문화가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SU-III 출범은 'Unique 순천향대병원의 탄생'을 알리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SU-III는 원격 진료, 병원 간 정보 공유 및 환자 연계 등의 미래지향적 구조를 담아 구축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 등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성 외에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 원장은 FULL EMR 도입으로 환자나 의료진의 진료 내용이 투명해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진료가 가능한 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와 가족들이 첨단 의료환경에서 건강을 돌보고 행복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는 ‘국내 1호 의료법인’의 자긍심을 한껏 드러냈다.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서교일 총장 및 김부성 이사장, 4개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SU-III를 기반으로 순천향대병원 가족들은 호텔급 서비스와 알파고 같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향해 미래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황 원장은 훌륭한 기술력을 보여준 현대정보기술(주)와 동은정보기술(주)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으며, 21세기형 디지털병원의 선두에 순천향대 병원이 항상 맨 앞에 설 것을 다짐했다. 황경호 중앙의료원장은 1986년 서울병원 근무를 시작으로 구미병원장, 부천병원장 2회 역임 등 30여 년간 ‘Only 순천향인’의 길을 걸어왔다.



## “차라리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7년 앓던 디스크 통증 해결해 준 구미병원 황재찬 교수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 상상조차 쉽지 않은 감정이다.

이은순 환자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들기 시작한 것은 무려 7년 전, 가볍게 생각했던 허리 통증이 점차 심해져 걸음조차 옮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절망의 끝에 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황재찬 구미병원 척추클리닉 교수였다.

국민 질환으로 자리 잡은 디스크의 역습, 황 교수의 시원스런 해법을 들어본다.

## 좌절 끝에 마주한 희망

무려 7년 동안 디스크(추간판탈출증)를 앓아온 이은순 환자(여, 47세)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척추클리닉을 찾은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씨는 자신의 다리로 걷지 못할 정도로 중증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

이씨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눕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빴다”라며 “차라리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만큼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이씨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가벼운 요통 정도로 시작됐지만, 이후 잘못된 초기대응과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척추질환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였음에도 동네의원만 전전했던 게 문제였다.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를 반복하던 이씨에게 결국 지난해 한계가 찾아왔다. 하루에도 수차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조차 잘 수 없을 만큼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구미병원을 찾아오기 전까지 이씨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로 수개월을 버텨야 했다.

그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이 씨에게 한 지인은 지난해 3월 개설한 구미병원 척추클리닉을 소개했다. 그 자신도 디스크 환자로 구미병원을 찾은 후 완쾌된 경우였다. 반신반의하던 이씨는 무거운 결음을 끌고 구미병원을 찾았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 다시 찾은 일상에 대한 감사

구미병원 척추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황재찬 신경외과 교수는 당시 이씨의 상태를 ‘장애인’이라고 표현한다. 완쾌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검사를 모두 마친 후 황 교수는 망설임 없이 이씨에게 ‘수술’을 권했다.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황 교수의 평소 의료철학과 대치되는 장면이었다.

황 교수는 “수술 이외의 그 어떤 치료법은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라며 “다만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장기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굳은 의지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황 교수는 환자와 수술 및 재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며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수술과 긴 재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환자에 대한 배려였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해 9월, 마침내 이씨의 수술이 시행됐다. 디스크가 발생한 요추에 신경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한 것이다. 황 교수를 필두로



“수술 이외의 그 어떤 치료법은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다만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장기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굳은 의지가 중요했다”

여러 진료과가 참여한 수술은 무려 7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이어졌다. 디스크도 심각했지만 오랜 투병으로 협착이 진행된 까닭이다.

황 교수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었던 수술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다소간의 재활이 필요할 거라는 예상도 빛나간 채 1~2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이씨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발로 굳건히 땅을 박차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다. 입원 당시 장정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했던 이씨는 이제 유유자적한 발걸음으로 버스를 타고 병원을 찾는다.

이씨는 “사실 처음 병원을 올 때만 해도 그저 진통제나 처방받을 생각이 었다”라고 고백하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준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실행하기 어려운, ▲바른 자세 유지 ▲무거운 짐 들지 않기 ▲자신의 체형에 맞는 신발 선택하기 ▲수영·걷기 등 가벼운 전신운동 하기 등을 꼽았다. 또한 허리나 목 등 척추와 연계된 신체에 불편함이 1주 이상 지속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을 것을 권했다.

‘국민 질환’이란 반갑지 않은 타이틀을 거머쥔 디스크의 역습에 대한 대처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환자중심의 혁신 실천하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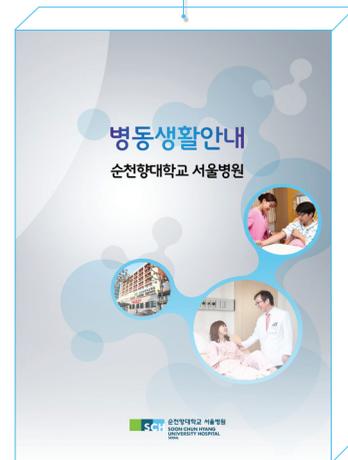
‘안전한 진료, 고품질 진료, 환자 만족 진료, 고부가가치 진료’



과거의 의료는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다. 모든 프로세스는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쉽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제 환자 중심의 의료가 필수적이고 모든 프로세스가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환자 경험 서비스’이다. 과거에 거론했던 ‘고객 만족’이나 ‘질 향상’을 환자 중심적 시각에서 재 정의한 것이 ‘환자 경험’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환자경험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경영 효율과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 환자경험 중심 서비스라는 과제를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에는 환자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안전한 진료, 고품질 진료, 환자 만족 진료, 고부가가치 진료’라는 네 가지 지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한 TF팀도 16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환자제일주의, 환자경험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총 5차례 걸쳐 환자경험 서비스 워크숍도 개최했다. 간호부 외래팀을 시작으로 교수팀, 간호부 병동팀, 진료지원팀, 행정부서 각 팀들이 과제를 발표했다. 모든 교직원들이 ‘환자경험이 혁신이다’라는 책을 읽고 병원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실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진료 부분에서는 각 TF팀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직접 환자와의 소통은 물론,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Health Care 변화의 중심에는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Health Care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실제 환자 경험을 고려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다. 우선 소개할 만한 것이 지난해 말 제작한 ‘병동생활안내’ 바인더이다. 입원환자를 위한 종합안내서인 이 책자는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 가깝다. 바인더를 열면 목차와 병실안내, 편의시설안내가 이어진다. 입원준비물 안내로 넘어가면 세면도구, 슬리퍼, 휴지, 물컵, 보호자침구 등 사진 5장과 각각의 이름을 써 놓은 것이 전부다. 식사안내, 응급 시 호출방법, 전동 침대사용방법, 냉난방사용법 등 웬만한 것들은 모두 그림으로 안내한다. 2부 편의시설 안내 역시 실물 사진을 활용했다. 카페테리아 편의점, 은행 및 현금인출기 위치 모두 실물 사진을 사용해 이해가 쉽다. 병동생활안내 바인더의 핵심은 환자와 보호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담았다는 것이다.





1 어린 부부의 가정생활환경은 아이를 키우기엔 부족함이 있다.  
 2 소아청소년과 이희경 교수가 피학대아동 진료중  
 3 학대아동예방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 부모가 된다는 건, 연습이 아닌 실전이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부부, 사랑받지 못한 부모가 아동학대 부른다

부모에 의한 잇따른 학대아동 사건을 보면서 부모 자격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배우지 않고 바로 실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가 되는 것과 자녀 양육이다. 남들 다하니 쉬울 것 같지만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부부, 사랑받지 못했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깨진 부부관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대아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의 가능성과 문제점, 이 시대 올바르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와 사회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자.

## 사례로 본 아동학대,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

### 청소년 미혼모 자녀

14살 소녀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 아빠는 12살 많은 남자다. 이 둘은 가출 후 동거한 관계이다. 엄마 없는 소녀와 아버지 없는 남자의 만남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위로가 됐지만 금방 태어난 아기를 두고 당장 병원비 마련과 지낼 곳을 걱정했다. 입양시키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기특함에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이들 가정에 병원비를 지원했고 지자체에서는 아기와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퇴원 후 몇 차례 가정방문으로 목욕과 분유먹이는 법, 청소와 요리방법도 알려줬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난 후 아기 아빠는 떠났다. 14살 소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결국 아기보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아동양육 시설에 맡기고 말았다.

###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

소아병동에 입원한 5살 남자아이 아빠가 별일 아닌 일에 아픈 아이에게 욕박지르고 때리는 것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다는 간호사의 신고로 아빠 상담했다. 아이 아빠는 국제결혼으로 이들을 낳았지만 장애가 있었다. 필리핀 엄마는 장애아들을 돌보지 않았다.

직장과 육아 모두를 담당해야했던 아빠는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이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후 상담과 학대예방교육이 이뤄졌으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어린 부부가 아기 키우기 법

부부부의 나이는 20살, 21살이다. 임신 사실도 모른 채 지내다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잘 키워 보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혼 가정에서 자라 그런지 보고 배운 게 많지 않다. 아기 분유가 당장 없는데 담배는 하루 한 갑 피우고 일용직으로 번 돈은 어김없이 배달음식을 시켜 끼니를 해결한다. 아기가 태어난지 3개월도 안됐는데 아내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서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유모차 안에서 뒤집기를 하려고 꿈틀거린다.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기의 경과를 살피기 위해 집중시기가 되면 햇살아이센터에서는 어린 부부에게 연락한다. 집중시기가 됐는데 어린부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병원과의 약속을 잘 어긴다. 병원에 나타난 부부 얼굴은 피멍과 찰과상으로 싸움의 흔적이 역력하다. 부부간 육탄전이 아키에게도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된다.

### 세번째 남자를 만난 이혼녀

“새 남자를 만나서 지금 낳은 아기는 입양 보내던지 전동거남한테 보내야 되요” 새남자를 만나기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입양 보내야 된다고 상담 요청한 여자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 두 명을 입양 보낸 적이 있다. 배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도 핏덩이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새 남자에게 부담이 될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은 이미 모성애를 잃은 지 오래다.

### 가정방문 통해 양육지지 활동 시작한 햇살아이지원센터

### 학대 되물림 막으려면 부모교육과 맞춤형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도적 뒷받침 활동 필요

위에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부모의 나이가 어린 데다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식을 돌볼 형편과 경험부족,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가 아동방임과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듯 성숙한 부모 아래 행복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길이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전 교직원들은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로 의심되어 질 경우 주저하지 않고 햇살아이지원센터로 연락한다. 이후 학대여부 조사나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시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연계 된다. 반대로 아동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학교교육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 햇살아이지원센터로 의뢰된다. 2015년도 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는 이 같은 네트워크로 총 38명의 아동에게 의료지원 142건과 심리치료 201건을 지원했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방문이나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부모가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생필품 지원과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방법도 교육한다. 하지만 의료지원, 부모교육, 상담과 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매번 한계에 부딪힌다.

이희경 햇살아이지원센터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육자인 부모의 변화이다. 하지만 단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과 협력 하에 오랜 기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양육, 교육, 주거, 취업, 생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오늘도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아동지원활동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상담,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 SCH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 초저선량 3차원 입체 뇌혈관조영기 가동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가 초저선량 3차원 입체뇌혈관조영기를 가동하는 등, 뇌졸중 전문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는 최근 뇌혈관조영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가동 중이다. 이 장비는 고화질의 3차원 입체영상 제공이 가능해, 뇌혈관 내 수술 시 고난이도 시술과 수술이 가능하다. 또, 방사선 피폭량이 기존 장비 대비 1/4에 불과해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사진: 초저선량 3차원 입체뇌혈관조영기

김범태 뇌졸중치료센터장은 “뇌혈관조영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져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인 도입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혈관내수술팀(신경외과 김범태·신동성 교수팀)은 연간 약 700례의 비침습적 뇌혈관내수술 및 뇌척추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수술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수술방법을 시행한다. 또,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연관 진료과가 긴밀한 협진을 통해 급성 뇌졸중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다. 다학제 의료진이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의 치료방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치료 결과도 좋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은 증상 발생 초기, 수일 이내에 증세가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어 의료진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전문적인 관리와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뇌졸중 전문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전문 치료실은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활력 증후 등을 24시간 집중 관찰하는 4개의 모니터링 병상을 갖추고, 전담 간호 인력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관 응급실 증축공사와 장비, 인력 보강 등을 거쳐 7월 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오픈한다. 응급 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병동 등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인천광역시·부천시·시흥시를 아우르는 인천 권역 내 급성 뇌졸중 환자 진단과 치료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신속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인천 권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진의 열정도 남다르다. 김범태 뇌졸중치료센터장은 환자 임상경험을 토대로 특허 등록 및 수술현장에 적용하고, 뇌혈관수술 환자들을 위한 환우회를 여는 등, 환자 치료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뇌혈관수술 등을 용이하게 하는 ‘수술용 보조 테이블’과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을 특허 등록했다. 이는 환자 진료와 회진, 연구, 대학 강의 등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김범태 센터장은 지난해 뇌혈관 내 시술 치료 3,000례를 기념해 ‘제10회 뇌혈관수술 환우회’를 개최하고, 뇌혈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건강강좌와 축하공연을 열고 위로했다. 환우회는 매년 개최

하고 있으며, 환우회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술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적응을 돕는다. 이처럼 환자들의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총 6회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줄곧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고,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sch**



- 1 뇌졸중 전문 치료실 개소식  
(좌측부터 황태희 간호부장, 신경과 이동현 교수, 김범태 뇌졸중치료센터장, 이문성 병원장, 이태경 내과계 진료부장, 신경외과 신동성 교수, 문연수 사무처장, 윤미화 수간호사)
- 2 환자를 24시간 집중 관찰하는 4개의 모니터링 병상과 전담 간호 인력을 갖춘 뇌졸중 전문 치료실 내부
- 3 뇌혈관 내 시술 치료 3,000례를 기념해 열린 '제10회 뇌혈관수술 환우회'



## 효과 입증된 신개념 암치료법 '온코써미아 온열암치료'

암 정복을 향한 의학계의 끈질긴 도전과 과학 발전에 힘입어 암치료법들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수술을 비롯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주요 암치료법은 물론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암치료법들의 약진은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현상이다. 임상에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보조적 암치료법 중 '온코써미아(Oncothermia 온열암치료(이하 온코써미아))'가 있다. 효용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암치료법이다. 온코써미아가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순천향대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여승구 교수의 논문 때문이다. 공신력을 등에 업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온코써미아 온열암치료. 여승구 교수로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 온코써미아로 크게 진화한 온열암치료

열로 암을 치료하는 온열암치료는 최근까지도 보편적 의술로 자리 잡지 못했다. 체내 암 조직에 선택적,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해서다. 그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 최근 개발된 온코써미아다. 온코써미아는 열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장도 함께 이용한다. 정상세포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고주파 에너지를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체내 깊숙이 위치한 종양에 효율적이고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종양이 폐나 간에 위치한 경우, 예전 방식의 온열치료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다. 폐의 공기나 간의 활발한 피 흐름이 냉각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온코써미아의 전기장 에너지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 폐암이나 간암에서도 좋은 치료효과를 보인다.

### 고주파 전류로 혈액암의 모든 암 치료

13.56MHz의 고주파 전류를 집중시켜 암 조직의 온도를 42℃ 정도까지 올린다. 세포가 파괴되는 온도다. 정상조직은 열을 받으면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발산해 온도를 조절하지만, 암 조직 혈관은 확장이 어려워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 온코써미아치료다.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치료 받는다. 치료로 인한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 1회당 치료 시간은 평균 60분. 치료주기는 주당 2~3회. 기본 치료 횟수는 12회다. 치료 대상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암이다. 암의 초기 치료 단계부터 전이암, 재발암 등도 치료가 가능하다. 또 암의 진행을 늦추거나 통증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 빛나는 조연 온열암치료의 뛰어난 효과

온코써미아는 단독으로도 암세포를 죽이지만,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의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는 보조 역할로 더 크게 인정받는다. 암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 항암약물이 더욱 잘 전달되게 하고, 산소 공급도 늘려 암세포의 방사선 민감도 역시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다.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다소 부족한 경우, 방사선과 약물의 양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늘리지 못할 때가 많다. 이때 온코써미아는 좋은 대안이 된다. 또 암세포에 내성이 생겨 일반 암치료가 반응이 없거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돼 치료를 더 이어가기 어려울 때,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검증이 안 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온코써미아는 좋은 대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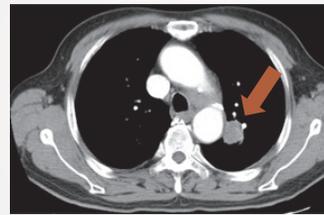
### 온코써미아 치료사례

## 다양한 암환자 치료, 가장 많은 암은 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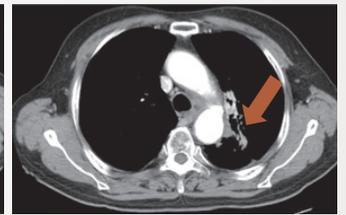
폐암 완치 사례는 세계가 관심, 온열암치료 재조명 계기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2013년 3월 충청권 최초로 온코써미아 온열암치료를 시작했으며, 그간 다양한 암환자들에게 적용해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었다. 최근 실시된 3000건의 치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대상으로 온코써미아 치료가 시행됐다. 치료건수가 가장 많았던 암은 위암(540건)이었고, 유방암(380건), 폐암(363건), 간암(322건), 췌장암(2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자궁경부암(159건), 두경부암(124건), 대장암(111건)도 치료건수가 적지 않았다. 완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아래 폐암 환자의 완치 사례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 2015년도 8월호에도 소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 폐암** 75세 남자 폐암 환자. 비소세포폐암 3기로 진단됐다. 동시 화학약물방사선 치료가 필요했지만 고령과 체력 등의 문제로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 보통 방사선치료만 단독 시행하게 되고, 생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치료결과가 좋지 않다. 방사선치료와 온코써미아 치료를 병행했다. 결과는 매우 좋았다. 치료 종료 후 정기 검사에서 종양이 모두 사라졌음이 확인됐다. 환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발 없이 정상 생활 중이다.



진단시 왼쪽 폐의 암 종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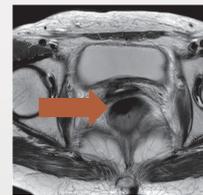


방사선치료와 온열암치료 후 종괴 소실

**#2 자궁경부암** 40세 자궁암환자.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진단. 암이 복부 대동맥주변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 확인. 방사선치료는 주말을 제외하고 약 7주간, 같은 기간 항암치료는 주1회, 온코써미아 치료는 방사선치료 기간 중 1주 2~3회 시행했다. 치료 후 복부 림프절에 퍼진 암은 모두 소실됐고, 환자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없는 상태다.



진단시 자궁경부의 암 종괴



방사선치료와 온열암치료 후 정상 자궁경부

**#3 유방암**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 온코써미아 치료도 병행했다. 수술 후 보조 방사선치료의 효과는 장기 추적을 통해 재발 여부로 판단하므로 온코써미아 병행치료의 부수적 효과 역시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에 비해 병행치료 환자들에서는 부작용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코써미아는 그 외에도 초기치료 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어 통상적인 치료를 더 이상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증상을 크게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등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커다란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간을 치료하고 고향의 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 서 박사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의료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서 박사의 일대기에 이어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해 후학들과 지인, 평소 서 박사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감동적인 얘기를 연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 “ 서 박사님의 높은 학문적 관심과 선진이론은 당대 최고입니다 ”

고(故) 향설(鄕雪) 서석조(徐錫助) 박사와 내가 처음 만난 것은 1954년 7월, 미국 뉴욕시 1번로 30번가에 위치한 Bellevue 병원에서였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젊은 군의관들은 미국 의학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군에서 파견 견습하는 것이 아닌 사적 유학이었다. JAMA 광고란을 보고 구직하는 방법과 미국 군의관이나 재미 친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나의 경우는 보병 제 1사단 근무 시절 알게 된 미군 군의관이 추천을 했다.

더욱이 Bellevue 병원 제3과에서 근무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행운이었다. 1954년 휴전 직후의 서울은 황폐했으며 남대문 5가에 있던 세브란스의대와 병원도 예외 없이 파괴되어 허물어졌으며 남아 있는 교수와 의사 그리고 직원들도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와중에서 김오선 선생님을 뵈게 되었다. 그 해 7월에 뉴욕시에 있는 Bellevue 병원에 가서 외과 수련의를 하게 됐다고 인사를 드리니 ‘그래 잘 됐구먼, 거긴 아주 좋은 병원이야. 그리고 그곳에는 서석조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가 한 분 계시니 가져든 찾아 뵈고 내 안부도 전해 주게. 그리고 서 선생님한테 좋은 지도도 받으며 의사공부도 올바르게 잘 하고 ... 무사히 돌아오게하는 것이었다.

나는 Bellevue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석조 박사님을 찾았다. 서 박사님은 제2내과 신경과 소속이고 나는 제3외과 소속이었다. 그 때 서 박사님은 알아듣기 힘든 낮은 음성으로 Bellevue를 구성하는 의과대학

즉 Columbia, Cornell, NYU 및 NYU postgraduate의 구성과 규모와 특성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미국 및 미국 병원의 생활과 근무에 관한 충분한 조언을 주셨다.

Bellevue 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고달픈 과로로 처음에는 모든 것에 큰 불만이 없었으나 며칠이 지나자 우리가 늘 먹던 한국음식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그때 미국에 그런 음식이 있을리 없었다. 김치는 고사하고 딱딱한 밥 한 그릇과 간장에다 고추장만 있어도...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 당시(1954년도) 뉴욕 시내에는 한식집이 없었고 일식집만 한두 군데 정도 있었다. 그 조차도 병원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서 박사님 방(Doctor's Quarter)에는 쌀과 간장이 있었다. 나는 그게 그렇게 반갑고 귀중한 줄 몰랐다. 간장에 비빈 한 술의 밥은 말할 수 없었다. 입맛이나 구미에 토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54년 7월 하고 몇 달 후에 서 박사님은 귀국을 하여 남대문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내과교수로 부임하였다. 나는 몇 년 후 1958년 늦여름에 귀국하여 세브란스 외과에서 근무하면서 내과와 외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얼마 후 서 박사님은 성모병원 내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968년 삼성재단이 서대문에 고려병원을 개원했을 때, 서 박사님은 부원장 겸 내과원장으로 부임하셨고 나는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박사님은 언제나 미국의 메이오클리닉과 같은 병원을 한번 해



한국  
의학교육의  
아버지

서석조 박사님

보고 싶다고 했다. 그 결실이 바로 1974년에 개원된 순천향병원이다. 서 박사님은 실질적인 설립자로 운영위원 겸 내과부장이 되고 운영위원장은 고 민광식 박사가 취임을 하였다. 병원장은 고 김학현 박사가 맡고 나머지 운영위원은 고 유훈박사 그리고 내가 되어 다시 서 박사님과 만나게 되었다.

순천향병원은 한국에서 제 1호 의료법인으로 출범하였고 서 박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멋있는 병원', '멋있는 의과대학'의 꿈을 이루기 위한 멀고 긴 여정과 힘든 고갯길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여 1978년에는 순천향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순천향병원이 개원되기 전에 서 박사님은 동은병원을 운영한 바 있으며 서 박사님의 높은 의료 명성은 이미 전국에 자자해 멀리서 온 많은 환자들이 서 박사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병원에서나 개인병원에서나 다름이 없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명성은 환자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 즉 최선의 의료지식과 기술로서 당대 최고의 진료를 제공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 박사님 자신이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은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노력의 결과다.

더욱이 박사님은 1972년 악성흑색종(惡性黑色腫) 치료에 한국에서 최초로 BCG를 사용했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먼저 BCG 사용의 이론적 근거를 따졌다. 그리고 BCG 치료법이 일종의 면역요법이며 장래에는 암종 치료에도 본격적인 면역치료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마음속의 의구심을 완전히 풀지 못하는 듯 주저하면서도 이론과 사실을 연구 보완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 만한 치료법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하려는 격려도 고마운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서 박사님의 높은 학문적 관심과 선진이론의 수용 등 개방성을 말해주며, 대학병원 운영 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이야말로 신설병원에서 환자진료의 선진화와 연구가 순항할 수 있는 근거임을 웅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순천향병원이 개원된 초기 전남 순천에서 사는 어떤 촌노가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당신네들 고향이 순천시 어느 마을이나?'고 물었다. 또 어떤 할머니가 한남동 오거리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 부근에 새로 생긴 '성춘향병원'이 어디냐고 묻던 이야기는 순천향이 생기고 나서 나온 해프닝이다.

순천향병원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알뜰하고 숭고한 뜻은 '순천자존(順天者存)하고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맹자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자연의 이치와 하늘의 뜻을 따르는 병원은 영원무궁한 발전을 한다는 축원을 담은 것이다.

나는 고 향설 서석조 박사님과 4번에 걸친 회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인연의 발현이라 생각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과 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끊임없는 선진 의료봉사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할 따름이다. 

# 순천향 정신 실천하고 떠나는 이 시대 마지막 ‘간호사 캡’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정영희 수간호사를 기억하며

켜켜이 쌓인 37년 세월을 뒤로하고 또 한 명의 장인이 순천향을 떠나간다. 여전히 낡은 간호사 캡을 고집하는 정영희 서울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장인 정신이 실종된 지 오래인 지금,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의 뒷모습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다가온다. 낡은 간호사 캡에 담긴 그녀의 장인정신을 되새겨본다.

## 간호사로 살아온 37년, ‘행복했다’

지난 2월 19일, 1979년을 시작으로 무려 37년 동안 오롯이 순천향과 함께 해온 정영희 수간호사가 정년퇴직을 맞이했다. 삶의 대부분을 부대끼며 살아온 공간과 이별하는 감정을 그 누가 쉬이 짐작할 수 있을까? 단순히 ‘아쉽다’라는 표현은 그에 대한 실례일 터다. 하지만 자신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순천향을 떠나는 정 수간호사의 얼굴에는 오히려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 누구보다 환자를 위해 헌신해온 지난 행보에 대한 뒤흔뒤흔함이었다.

“퇴직을 앞두고 돌이켜 보니 어느새 37년이란 시간이 지났더군요. 마치 어떤 노래 가사처럼 꿈결같다고 해야 할까요. 40여 년 전, 서울병원 인근의 한남초등학교에서 봤던 간호사 시험 문제까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니 제가 정년퇴직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습니다. 10대 1의 경쟁을 뚫고 간호사가 됐을 때 저는 ‘평생 환자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후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봐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 수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돌볼 때는 뛰어다니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어떤 비유의 표현이 아니다. 말 그대로 ‘뛰어다녔다’는 뜻이다. ‘난다’ 긴다. 정 간호사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열정적인 근무

태도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 덕분에 대다수 직장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승진’의 기회 또한 수시로 찾아왔다. 하지만 정 수간호사는 모든 승진 제안을 고사하며 오직 중환자실 근무만을 고집했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닌 환자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일반 간호근무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병원 측이었다. 수십 년 경력과 높은 인사고과점수를 감안하면 이미 수차례 승진을 거쳐 관리직에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환자와의 직접 대면을 고수하는 그녀의 완강함에 이례적인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병원 측은 승진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 낡은 간호사 캡에 담긴 진심

병원이 선택한 방법은 ‘포상’이었다. 각종 포상을 통해 정 수간호사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휴식과 보상을 곁들이기로 한 것이다. 수많은 상 중에서도 정 수간호사는 직원들의 투표로 뽑은 ‘모범상’과 지난 2008년 수상한 ‘올해의 순천향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니 제겐 그 무엇보다 의미가 큰 상이죠. 겸사겸사 해외여



행도 다녀왔으니 팔자에 없는 호강을 제대로 누리기도 했구요(웃음). 올해의 순천향상은 부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부상으로 현금 150 만원을 받았는데, 기분 좋게 부서 회식을 위해 쾌척했습니다. 모처럼 중환자실 식구들이 거한 회식을 할 수 있었죠.”

정 수간호사가 근무한 중환자실은 높은 근무 강도를 기본으로 한다.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서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까닭이다. 의료진이 그리 선호하지 않는 부서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중환자실 근무를 자청했다. 잠시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중환자실 근무를 희망했다.

“저라고 중환자실 근무가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간호사 캡을 쓰고 처음 다짐했던 맹세, 환자들을 성심으로 대하겠다는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일하다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됐네요.

아쉬운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던 37년 세월이 뒤흔어지기에 훌기분한 마음으로 순천향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렇그렇 눈물 맺힌 눈가와는 달리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간호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온 37년 세월에 대한 자부심이라. 간호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착용해온, 이제는 유물이나 다름없는 낡은 간호사 캡이 더없이 잘 어울리는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는 그동안 자신의 삶과 다름없었던 순천향을 향해 마지막 감사인사를 전했다.

“37년을 하루같이 매일 새벽에 출근해 밤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간호사로 살 수 있어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를 어엿한 간호사로 만들어준 순천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병원을 떠나지만 인간사랑 정신을 품은 순천향인이란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 SCH



Field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병원  
24시

글 하상원 사진 심지연



국내 최고의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불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다

신생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신생아 집중치료실뿐이다.  
다시 말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존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천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해왔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하루를 함께 한다.

### 부천 지역 최초 정부 지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2001년 개원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후 조산아와 중증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며 입지를 넓혀갔고,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선정돼 국비지원을 받으며 보다 체계적인 신생아 의료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최초로 국가 지정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부천병원은 국비지원금에 더해 병원 자체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 병상을 대폭 확대(27병상)하는 한편 최신 시설, 장비,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신생아 전문 의료시스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는 한 공간에서 「진료·검사·치료·수술」의 모든 신생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신생아학 분야 세부전문인인 김성신·박가영 교수 외에 박선형·장명선·송지인 전공의 등 다수의 전문 의료진을 구성해 24시간 내내 환자들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박종희 수간호사와 이은주 주임간호사 이하 34명의 전담간호사를 구성해 3교대로 각각 10명 이상의 간호사가 배치되도록 했다.

지속적인 확장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부천병원이지만 아직 모든 부분에서 신생아 환자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입소문을 타며 부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인근 지역 환자들이 몰려드는 탓에 때로는 병상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국내 최고의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한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하루를 재구성한다.

**AM 6:30**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입원 환자들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늘 1명 이상의 의사와 다수의 전담간호사가 상주하며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신속한 처방을 하고 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주간 근무자들의 인수인계가 시작되는 시간은 매일 새벽 6시 30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AM 08:00~08:30**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소속돼있는 소아청소년과 전체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김성신 교수(신생아 집중치료센터장)를 중심으로 회진 전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편 각 환자별 맞춤 치료방침을 정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AM 08:30~09:00** 영상의학과 - 소아청소년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협진

전체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 환아에 대한 협진이 열렸다. 홍현숙 영상의학과 교수는 사진 판독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진과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에서 태어난 해당 환자는 38주 만에 출산한 2500그램 아기로 폐동맥 고혈압, 호흡곤란 증후군, 기흉이 심한 상태로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까닭에 신생아 환자의 진단-치료-수술이 모두 가능한 시설을 갖춘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AM 09:00~12:00**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회진 풍경은 다른 과와는 사뭇 다르다.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신생아 환자들의 특성상 특정 시간에만 회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진들은 24시간 내내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작은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근무 자체가 곧 회진과 마찬가지로 터다. 회진에는 김 교수를 비롯해 박가영 교수, 박선형·장명선·송지인 전공의, 박종희 수간호사 등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한다. 회진 시 환자의 현 상태 확인 및 치료, 각종 검사 등이 병행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병상확장(27병상)과 최신 시설 및 장비 확충을 단행했다. 특히 각 병상별로 환자의 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급격한 상태 변화가 잦은 신생아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졌다.



**AM 10:20** 회진 중, 32주 미숙아가 갑자기 위 역류를 일으켰다. 병실 벽면에 걸린 모니터에서 긴급 신호가 울리자마자 의료진과 박종희 수간호사는 즉시 환자에게 달려가 적절한 처방을 실시했다. 매 순간순간이 전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시간이 유독 빠르게 흘러간다.



**PM 1:00** 이제 갓 출산된 신생아가 새롭게 입소했다. 새 식구맞이에 앞서 여홍진, 김민경 간호사가 신생아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사정을 시행하고 있다. 몸 구석구석을 만지고 반응을 살피으로써 신체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신체사정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 중 하나다. 다행히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수일간의 의료진 보살핌 이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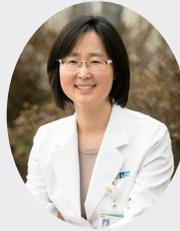


**PM 02:00** 뭔가 목적인 장비가 들어온다. 이준우 방사선사가 신생아용 세팅을 마친 X-RAY 장비를 갖고 온 것이다. 30주 여 아 환자의 복부와 폐 등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촬영된 X-RAY 사진은 곧바로 영상의학과로 보내져 전문의의 판독을 거친 후 필요시 협진이 이뤄지게 된다. 보다 정확한 치료 방침을 위한 관련 과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PM 03:00~03:30** 단 30분만 허락되는 보호자 면회 및 면담 시간이다. 우여곡절 끝에 듣직한 왕자님을 출산한 30대 부부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김 교수는 부부에게 현재 아이의 상태와 추후 치료 방침을 자세히 설명하며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 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잊지 않았다.

**All Day** 앞서 말했듯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루 3교대로 돌아가는 36명의 전담 간호사와 당직의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급격한 상태 변화와 그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필수인 신생아 환자들을 위해 최적의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의료행위는 '지켜보는 것'이다.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인 셈이다. 



**김성신 교수(신생아 집중치료센터장)**

**'국내 최고의 신생아 전문 의료시스템 확립할 것'**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강점은 진단, 치료, 수술 등 일련의 의료서비스가 한공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태 급변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신생아 환자의 특성을 십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과 병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병상 확장 및 최신 시설·장비를 도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신생아 전문 의료기관을 자신하는 만큼 향후 지역 내 신생아 환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맞춤형 의료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가영 교수**

**'신생아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시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그 특성상 대부분 생존 한계에 놓인 환자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생명들이죠. 아직 면역체계가 채 형성되지 못한 까닭에 중증 신생아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사를 오가는 시투를 벌이곤 합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시설입니다. 앞으로도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진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선형 전공의**

**'마음으로 치료하는 방법 배운 소중한 기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온 게 바로 어제 일 같은데 벌써 올해가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눈을 땔 수 없는 신생아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집중치료실의 근무 환경이 그리 쉽지 않았습다. 남몰래 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작은 생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첨단 장비나 시설이 아닌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환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의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희 수간호사**

**'환자들의 부모라는 마음가짐 가져야해'**

돌이켜보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한지 어느새 1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아픈 몸으로 입원했던 아이가 퇴원 후 건강하게 다시 병원을 찾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디작은 생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모든 의료진은 늘 부모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작은 아이들은 '환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식'과도 같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늘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대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개인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팀 실력이죠”

한국을 넘어  
유방암 치료의 세계 표준을 만들어간다



●  
김성용

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교수  
유방암센터장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산하 서울, 부천, 천안병원은 '순천향 유방암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1년에 세 번쯤 모이던 연구팀은 최근 모임 횟수를 두 달에 한 번으로 늘려가고 있다. 외래진료와 수술, 강의와 학회 활동으로 늘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의사들이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유방암 권위자로 손꼽히는 김성용 교수에게서 그 해답을 들었다.

### 한국인에 맞는 표준화된 치료법 개발이 중요 키워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면 재미 없잖아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유방암클리닉, 갑상선암클리닉, 무수혈센터의 소장이자 '순천향 유방암 연구팀'의 운영을 맡고 있는 김성용 교수는 요즘 함께 하는 공부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어려운 의대 공부를 마치고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가 되기까지 공부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을 그가 여전히 공부에 매진하는 이유는 자신과의 약속 때문이다.

“항상 전공의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올 때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라고요. 사실 그건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늘 환자들에게 잘해주겠다는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터월드'에 2년 연속 등재되었으며, 굵직한 학술상을 10여 차례 수상한 김 교수는 실제 '순천향 유방암 연구팀'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처음 연구팀에 참여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같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도 의사마다 수술명도 다르고, 병리 리포트도 다르고, 영상 리포트도 다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것들을 통합해서 표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부지런히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의 경우 서울과 부천, 천안 등 지역이 다르다 보니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생활환경, 경제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케이스를 접할 수 있다. 케이스별 치료법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표준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이는 결국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입니다. 외국산 항암제를 선택할 때도 그것이 한국인에게 안전한 것인지 우리만의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팀의 실력을 높일 때 유방암 완치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 우물 안 개구리,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다

연간 200건의 유방암 수술을 직접 진료하고 집도하는 김 교수는 세계

유방암학회(GBOC) 사무총장, 한국유방암학회 총무이사 등 다양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바쁜 스케줄 중에도 학회활동에도 열심인 이유 역시 배우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1999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한 후 내가 아는 것만이 최고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유방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일본 유방암치료 의사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항암치료가 주를 이루었고, 반면 일본에서는 주로 항암치료 외에도 호르몬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 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후 우물 안 개구리식의 막힌 사고방식은 개방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었고, 지금의 '순천향 유방암 연구팀'을 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세계유방암학술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한국유방암학회의 요직을 역임해오고 있는 김 교수는 최근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오는 4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유방암학술회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위촉된 것이다. 세계유방암학술회의(GBOC: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는 한국유방암학회가 만든 세계적인 학술행사다. 매년 1천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유방암 전문의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 만큼 포부 또한 크다.

“한국유방암학회의 목표는 아시아 유방암 치료의 허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학회에서는 유럽의 기준을 만들고 미국학회는 미국의 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한국유방암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학회,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학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 의사들 중에도 수술 많이 하는 의사, 환자 많이 보는 의사, 논문 잘 쓰는 의사, 봉사하는 의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팀을 서포트 해주는 것이라 말하는 김성용 교수. 혼자 빛나기보다 모두 함께 빛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의 활약을 기대한다.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공와우이식 대열 합류

이병돈 · 황규린 교수팀 59세 환자에게 첫 시술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이 난청 환자의 희망으로 알려진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시작했다. 이병돈·황규린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지난 1월 좌우측 와우(달팽이관)의 기능을 상실해 청력이 거의 없는 59세 남순자(여)씨에게 인공와우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이어 2월 15일에는 내부 장치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외부장치의 세팅을 마쳤다. 시술을 받은 남순자씨는 “아직은 기계음이 외부 소리와 함께 들려서 불편하지만, 전혀 듣지 못하던 때와 비교하면 암흑에서 벗어난 기분”이라며 “보청기를 처음 착용했을 때도 ‘웅’ 하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 인공와우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수술을 집도한 황규린 교수는 “성장기 말을 배우는 시기에 오른쪽은 청력이 정상이었고 이후 청소년기에 서서히 청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행히 말이 유창하고, 인공와우이식을 통해 청력을 다시 살리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 수술을 권했다”고 말했다.

남순자씨는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우측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전농(deaf) 상태였고, 왼쪽

귀는 아주 큰 소리만 조금 느끼는 정도의 의미 없는 청력을 가진 상태였다. 왼쪽 귀는 어려서부터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였고, 오른쪽 귀는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15세부터 서서히 저하돼 40세 무렵엔 완전히 없어졌다.

청력이 없어진 뒤 보청기 착용을 시도했지만 워낙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후 보청기 외에는 청력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양측 귀를 농 상태로 방치해 오다가 이병돈·황규린 교수팀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남순자씨가 받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달팽이관이라 불리는 와우의 기능이 망가져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소리를 느끼게 하는 치료법이다. 청력이 완전히 없거나 보청기를 통한 청력 보조가 불가능한 고도 난청 환자에게 유용한 수술이다.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 어린이에게도 유용하다. 인공와우 수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정상 청력 아동에 비해 언어를 배우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요즘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고 적절히 청각재활 훈련을 시행한다면 학업성취도와 사회관계 형성에도 전혀 차이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달팽이관은 청력 신호를 청각중추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전기적으로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전자음(electrical sound) 같은 소리가 들린다. 정상 청력일 때의 자연스러운 청각음은 아니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

수술은 전신 마취 후 귀 뒤쪽의 피부를 절개하고 귓구멍 뒷부분 뼈에 내부 장치가 위치할 자리를 만든다. 이후 미세 현미경으로 귀 뒤의 뼈에 전극이 위치할 공간을 만들고 달팽이관에 길을 내어 내부장치의 전극을 삽입한다.

절개한 상처가 아물고 내부 장치가 안정화되면 약 4주 후 외부 장치를 착용해 외부의 소리신호가 전기신호로 잘 변환될 수 있도록 주파수와 강도 등을 개인별로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차례 하게 된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만 잘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와 치료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제조사의 긴밀한 협조 및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청력검사실과 전정기능 검사실, 언어치료실의 정확한 검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청력평가와 언어평가, 청능 언어 재활을 통해 환자의 인공와우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얘기는 의료진의 수준뿐 아니라 치료사, 간호사 및 사회사업팀 등의 병원 내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양측 고도 난청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실비 보험은 개별 약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술 대상은 보청기가 의미 없는 양측 고도 난청일 경우에는 효과가 좋으며 편측 난청일 경우에도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인공와우 수술 외에도 이병돈·황규린 교수팀은 최근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최신의 중이임플란트 수술 및 첨단 보청기 클리닉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난청환자에게 순천향 서울병원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황규린 교수

# 경인지역 최초 인공중이(보청기) 이식술 성공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종대 · 김보경 교수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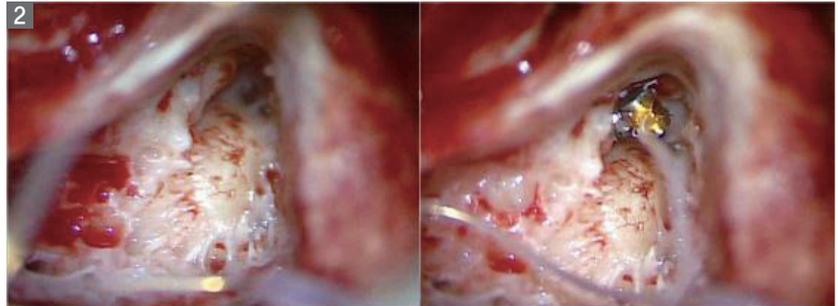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이종대 · 김보경 교수팀)가 경인지역 최초로 '인공중이 (보청기, Vibrant Soundbridge®) 이식술'에 성공했다. 이번에 성공한 인공중이 이식술은 기존 보청기의 지속적인 착용이 어렵거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난청 환자들에게 이식형 보청기를 통해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청각 재활수술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김보경 교수는 지난 1월 5일 양측 난청 환자인 김모씨(남, 61세)에게 인공중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환자 김 씨는 평소 상대방의 작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과 회사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일반 보청기를 착용했으나 여전히 소리가 작게 들리고 착용감이 불편해, 이번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인공중이 이식술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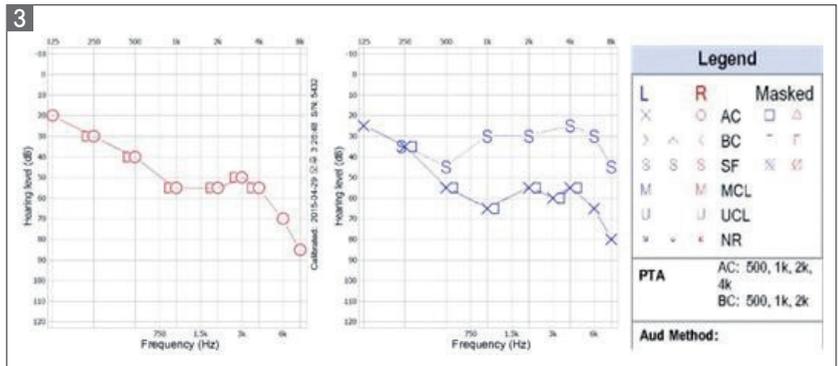
일반 보청기는 외이도로 들어오는 소리를 확대한다. 반면에 김 씨가 이식받은 인공중이는 중이 구조물(이소골)을 진동시켜 소리를 증폭한다. 따라서 일반 보청기에서 발생하는



2



3



폐쇄 효과나 음의 되울림 현상이 없어, 음질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소리 청취가 가능하다. 특히 고주파수의 음을 잘 인지해 소리의 분별에 도움이 되며, 경도에서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서 우수한 청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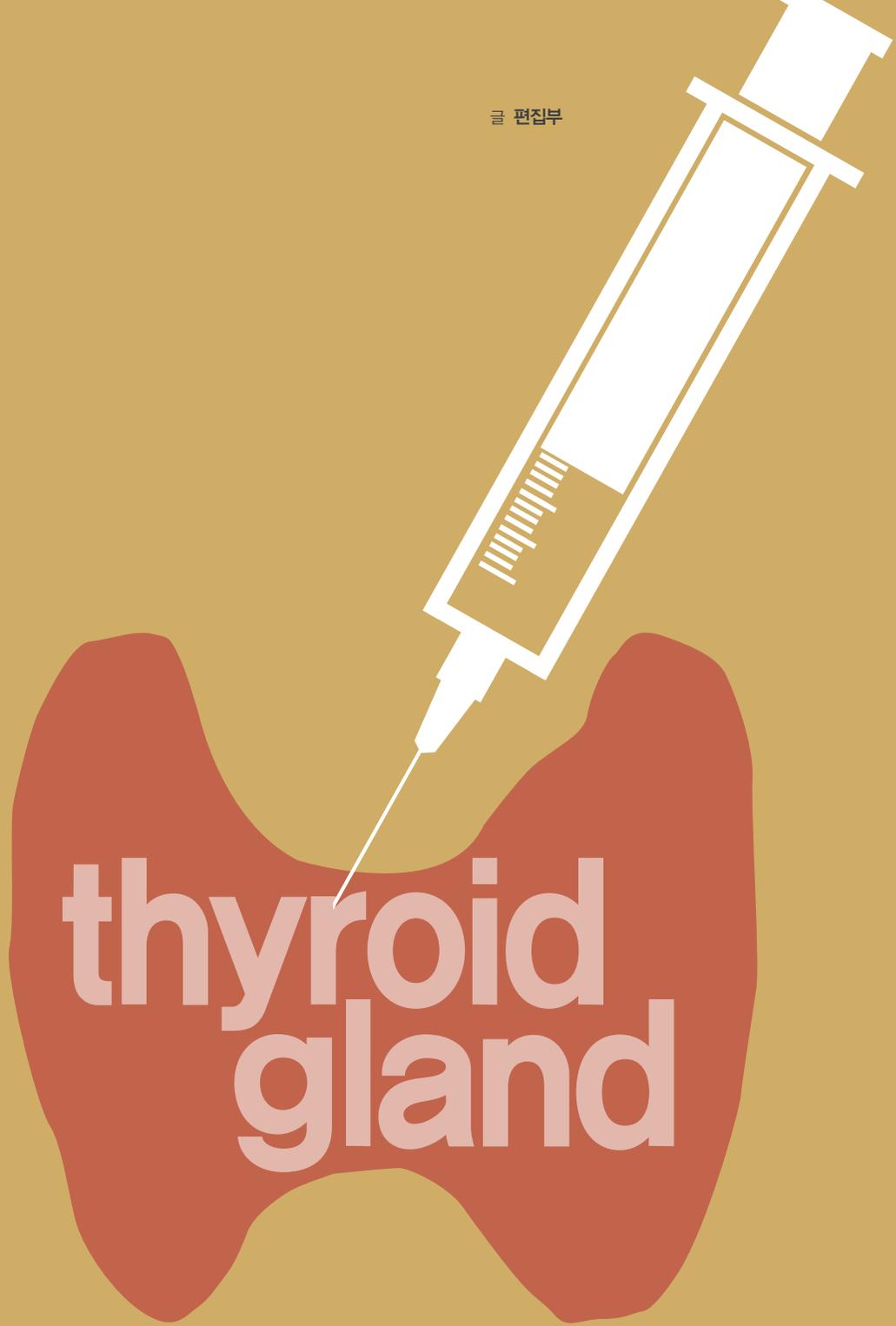
집도의인 김보경 교수는 “인공중이 이식술은 내부장치는 피부 안으로 모두 이식하고, 외부장치는 인공와우 이식술처럼 자석을 이용해 피부에 탈부착할 수 있어 청력 재활 효과 뿐만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뛰어난 시술이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김 씨는 경과가 좋아 일주일 만에 퇴원했으며, 수술일로부터 4주 뒤에 외부장치를 착용하고 첫 인공중이 조절을 시행한 결과, 기존 보청기에 비해 우수한 청력 회복 효과를 얻어 큰 만족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공중이 이식술은 2015년 9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게 요양 급여가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감이 줄었다. 이번 인공중이 이식술 성공은 난청으로 고통받는 경인지역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번에 성공한 인공중이 이식술 외에도 약 150례 이상의 인공와우 이식술 등, 다양한 청각 재활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난청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선물하고 있다. ■ SCH

- 1 '인공중이(보청기, Vibrant Soundbridge®) 내·외부 장치(위), 외부장치를 자석을 이용해 피부에 부착한 모습(아래)
- 2 인공중이 내부장치 중, floating mass transducer(FMT)를 이소골의 침골에 고정한 모습 (좌측: 이식 전, 우측: 이식 후)
- 3 인공중이 착용 후, 향상된 청력 결과 - 그래프 'S' 값
- 4 '지난 1월 5일 경인지역 최초 인공중이 이식술 성공'을 기념해 열린 축하 세리머니 모습 (제일 우측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김보경·이중대 교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호르몬제 중단으로 인한 환자불편 끝!  
갑상샘 자극 호르몬 주사요법

갑상샘암은 치료 예후가 좋아 흔히 착한 암으로 불린다. 전체 암 가운데 생존율도 가장 높다. 하지만 안심과 방심은 금물이다. 진행 속도가 느릴 뿐 갑상샘암도 반드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같은 갑상샘암이라도 종류마다 위험도는 다르다.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인 갑상샘암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갑상샘암은 초음파 검사 및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단 후 상태에 따라 부분 혹은 전체 절제수술을 받게 된다. 갑상샘암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그 상태에 따라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과 암 조직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된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암 재발률은 낮아지고, 이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혹시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재발도 조기진단이 가능해진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환자는 갑상샘 절제 후 보조적으로 투여 받는 갑상샘 호르몬 제제를 한 달 간 끊어야 한다. 갑상샘 조직에 방사능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게끔 준비하는 과정이다. 갑상샘 호르몬 제제를 끊는 이유는 갑상샘 호르몬의 체내 분포량을 줄여서 뇌하수체로 하여금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게 하는 명령 체계인 갑상샘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을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 조직에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요오드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는 갑상샘 기능 저하와 관련된 전신부종, 우울감, 피로감 등 여러 증상들을 겪게 되고, 치료 후에도 몇 주간 이 증상들이 지속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주사요법이다. 환자가 갑상샘 호르몬을 끊지 않고도 외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투여함으로써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사성 요오드 복용 1일, 2일 전에 엉덩이 부위에 주사한다. 주사 맞는 이틀과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 받는 입원 첫날을 제외하고는 치료기간 중 갑상샘 호르몬 제제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갑상샘 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주사요법을 이용하면 신장 기능을 포함해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정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의 배출도 원활히 이뤄져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피폭 관리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침샘염인데, 주사요법을 사용하면 침샘염 발생도 훨씬 적다. 치료 효과도 기존 갑상샘 호르몬 중단 요법과 비교해 전혀 차이가 없다. 주사요법 기간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 중단요법과 마찬가지로 1~2주 동안은 저요오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주사 후 약간의 오한 및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만큼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주사요법은 여러 장점에도 과거에는 널리 이용되기 어려웠다. 고가의 비용 때문이다. 갑상샘암 수술 후 치료에는 전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치료 후 추적 관찰 기간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됐다. 몇 년 전부터 제한적인 치료 용량에 한해서 갑상샘 전 절제술 후 1회의 주사요법은 보험이 적용돼 예전보다는 비용 부담을 훨씬 덜게 됐다. 더욱이 2016년 1월 27일부로 주사요법 치료 용량 기준과 대상 범위가 변경됐다. 원격전이가 있는 환자를 제외한 모든 갑상샘암 수술 환자들이 주사요법 적용을 받는다. 이제는 보다 많은 갑상샘암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통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핵의학과 이상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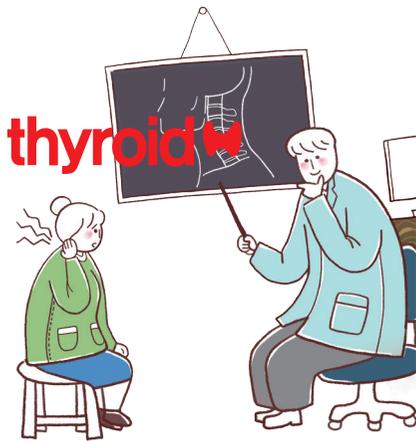
hormone





글 이정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선천성 갑상선저하증



국내 선천성 갑상선저하증 환자의 유병률은 1997년에는 1/5500명에서 2007년 1/3100명, 2014년에는 1/124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물론 의학의 발달과 신생아선별검사의 확대 때문에 환자의 진단이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미국, 뉴질랜드 등의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호르몬 교환물질의 영향이나 미숙아들에서의 진단이 늘어난 것 등의 원인들이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생각이 든다.

신생아 선별검사가 모든 신생아들에게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는 장기간 황달, 큰 혀, 변비, 신 목소리, 발달 지연, 근 긴장도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 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통하여 진단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발달 및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생아기 때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신 지체 및 성장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선천성 갑상선저하증의 원인으로는 갑상선무형성증(thyroid aplasia), 이소성 갑상선(ectopic thyroid), 갑상선 호르몬합성장애(dyshormonogenesis), 갑상선 저형성증(hypoplasia) 등이 있다. 또한 드물지만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의 이상으로 인한 중추성 갑상선저하증이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서 갑상선 자극호르몬(TSH) 수치가 20  $\mu\text{U/mL}$  이상인 경

우 의심하는데 최근의 검사 방법으로는 보통 10  $\mu\text{U/mL}$ 을 기준(cut-off)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치가 높은 경우는 빨리 채혈검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FreeT4 혹은 T4의 수치가 낮고 TSH는 정상인 경우에는 TBG 결손증 혹은 중추성갑상선저하증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최근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TSH 수치가 출생 후 일시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나 처음에는 정상이나 이후 높게 나오는 경우, 만삭아에서도 신생아 선별검사에서는 정상이나 이후 황달이 심하거나 변비가 심해서 검사를 통해 진단받게 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치료는 신지로이드(Levothyroxine)의 경구 투여이며 그 효과는 좋은 편이고 TSH 값은 정상범위에서 약간 낮게, T4 혹은 FreeT4 값은 정상범위의 상위 1/3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면서는 과량의 요오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고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콩류, 칼슘, 철분 등은 동시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갑상선무형성증이나 이소성갑상선의 경우는 평생 호르몬 보충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만 3세경에 재검사(Re-evaluation)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약을 중단할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미숙아들에서나 처음 진단 시 TSH 수치가 낮거나 모체 항체의 영향으로 갑상선저하증이 온 경우들에서는 만 3세 이전에도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고마다 다르지만 보통 10% 정도) 만 1세 이후 적절한 연령에 재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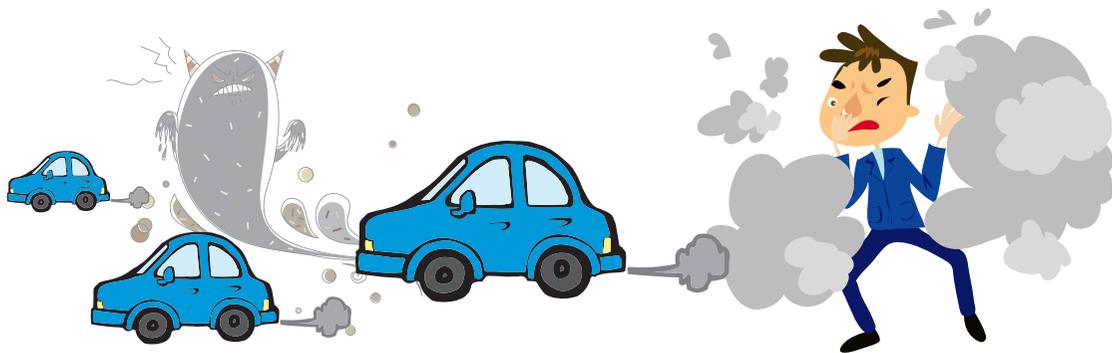
약을 평생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시작 후 정기적인 갑상선 기능에 대해 검사해서 적절한 약물 용량을 정하고, 성장 발달 및 심리행동에 대하여서도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전대사성질환 및 소아내분비 클리닉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중 PKU 환자와 더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천성 갑상선저하증 환자들이다. 지금은 약 1000여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전국 단일 대학병원 중에서는 가장 환자가 많다. 현재 선천성 갑상선저하증 환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연구 및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노력 중이다.



글 장안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디젤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섬유화' 초래



최근 몇 년 사이 캠핑 등 레저문화 발달과 함께 디젤을 주 연료로 하는 SUV 차량이 크게 증가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초미세먼지 크기의 배기가스인 '디젤 분진'을 배출한다. 특히 지난해는 '폴크스바겐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대기오염 논란이 일면서 전 세계가 시끄러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정의한다.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 $\mu$ m 이내의 고체 또는 액체 성상의 물질들로 구성된 부유 입자성 분진으로, 발생 기원에 따라 탄소 성분(검댕, 생물체 유기탄소), 이온 성분(염소, 질산, 암모늄, 나트륨, 칼슘 등), 금속 성분(비소, 납, 수은 등) 또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벤조피렌 등) 등 다양한 화학적 특성과 성분을 포함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 표면적,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 위해 영향을 미치는데 입자의 크기가 2.5 $\mu$ m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는 눈과 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폐로 직접 흡입돼 천식 발생과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즉, 미세먼지는 기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정상인에게서도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한다. 천식과 같은 만성 알레르기질환에서는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급성 기도 염증과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여 천식을

악화시키고, 노출량에 따라 입원 위험도가 증가한다.

필자는 천식 동물모델을 디젤 분진에 장기간 노출하여 기도과민성과 기도 염증을 관찰하는 연구를 시행했다. 실험 방법은 생쥐에게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5번, 기간은 실험군을 나눠 각각 4주, 8주, 12주 동안 디젤분진에 노출하여 기도과민성과 기도 염증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고용량 디젤분진 노출군에서 기도과민성과 기도 염증(세포분화, 염증 사이토카인-IL-5, IL-10, IL-13, IFN- $\gamma$ )이 증가했다. 또, 혈관 형성과 연관된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을 비롯해 폐섬유화와 콜라겐(Collagen)이 증가했다. 즉, 초미세먼지 입자 크기를 가진 디젤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도 염증, 기도과민성 등이 증가하고,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천식 및 알레르기 분야 국내 최고의 영문 학술지인 'AAR(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에 게재됐다. 단기간에 미세먼지에 다량 노출되거나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에는 만성적인 기도 염증 유발로 폐기능 감소와 천식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장기간 노출에 따른 천식 발생 위험도는 소아와 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디젤분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협력과 국제기구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천식, 폐질환 환자들이나 노인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은 닫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글 전민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예방접종으로 건강할 때 건강 지키자! 성인예방접종 종합 가이드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질환이 어린이보다는 성인에서 훨씬 많았다고 한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환자 증가와 함께 감염병의 합병증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어린이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성인들은 예방접종에 매우 둔감하고 방치되고 있는 게 실상이다. '만사불여튼튼'이란 말이 있다. 매사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건강불여튼튼'.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건강에 대한 대비는 이제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예방접종으로 튼튼히 하자. 대한감염학회가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주요 예방접종 내용이다.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입원률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접종 후 빠르면 2주, 보통 4주 정도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항체가 형성된다. 12월부터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9월~11월 사이에 백신을 미리 접종받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 만성기관지염, 천식, 만성콩팥병, 각종 암이나 면역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독감 예방접종은 필수다.

**폐렴 예방접종** 영유아나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폐렴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증 발생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폐렴알균백신 접종으로 중증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폐렴알균백신은 13가 단백결합백신과 23가 다당류백신이 개발돼 현재 접종되고 있다.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13가 단백결합백신을 접종받고, 1년 후에 23가 다당류백신 추가 접종을 추천하고 있다.

**간염 예방접종** A형간염 예방접종은 1회 접종 후 6~12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2회 접종 시 99%이상 항체가 형성된다. B형간염은 연령이 낮을수록 만성화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유아가 있는 가족은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총 3회를 실시한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예방이 중요하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접종**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전 연령대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만 11~12세에서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이하 Tdap) 결합백신을 1회 추가접종 받는 것이 좋고, 이 시기가 지난 청소년 및 성인들도 Tdap 백신을 1회 접종이 권장한다.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10년 간격으로 파상풍, 디프테리아(Td) 결합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60세 이상 연령에서 접종이 추천되나 평소 음주를 많이 하거나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60대 이전에도 대상포진 발생이 많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60세 이전이라도 접종받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다. 최초 성관계 전에 HPV백신을 접종해야 효과가 있다. 13~23세 여성들에게 접종을 권장한다. 2014년부터는 9~26세 남성들도 HPV 4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남성은 생식기 사마귀나 항문암 예방 효과가 있다. ■ SCH



글 주재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경과 교수

## 후유증이 무서운 뇌졸중, 예방과 응급치료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지러움이나 사지에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뇌졸중에 대한 염려를 내비친다. 갑자기 발생한 이러한 증상이 모두 뇌졸중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왜 이리도 뇌졸중 발생을 두려워할까?

무엇보다도 뇌졸중이 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노인질환으로 인식해왔지만 요즘은 30~40대와 같은 젊은 연령에서도 뇌졸중이 흔히 발병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뇌졸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주치의를 포함한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뇌졸중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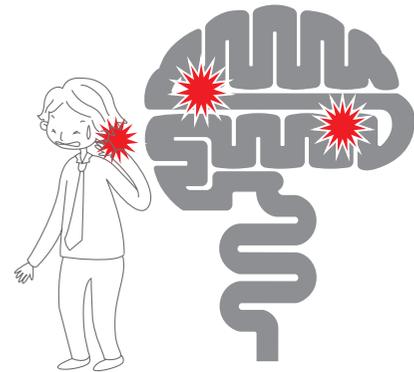
### 뇌졸중은 어떤 질환이고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일까?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치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머리 CT나 MRI 검사를 시행으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과 같이 조절 가능 위험인자와 나이, 성별, 인종, 가족력과 같이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가 있다.

### 뇌졸중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다.

-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진다든지 한쪽 얼굴, 팔, 다리에 멍멍한 느낌 혹은 저린 느낌이 생긴다.
-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
- 걸음을 걸기가 불편해진다.
- 한쪽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인다.
-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토한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신경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알다시피 뇌세포는 단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손상되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 따라서 발병 후 치료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 도착 4~5시간 이내에 발생한 뇌경색이라면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가 시행되며, 정맥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약물 치료로 뇌졸중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뇌졸중은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발이 많기 때문에 2차 예방 역시 중요하다. 재발 뇌졸중은 처음 발생보다 후유증이 크고 치명률도 높다. 자신의 위험인자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식이조절, 운동, 금연, 비만 예방과 같은 생활습관 변화를 유지해야 하며 더불어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 치료도 지속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앞서 고혈압, 당뇨병을 잘 조절하고 금연, 절주하며 적절한 운동으로 뇌졸중을 예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 순천향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다

최태윤 의대 학장, “좋은 의사 배출할 수 있는 유니크한 의대 만들 것”

올해로 33회 졸업생을 배출한 순천향 의과대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약 40년 동안 오직 순천향인으로 살아온 1회 졸업생, 최태윤 교수가 의대 학장에 취임한 것이다. ‘학생사랑’으로 압축되는 최 교수의 교육철학이 만들어갈 새로운 순천향 의대의 미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사례 1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A씨는 소위 ‘결식학생’이었다. ‘대학교, 특히 의과대학에 무슨 결식학생이 있겠냐’라는 의심이 들 만도 하지만 당시 A씨는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이에 A씨는 학교에 다니는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 학자금 대출 이자와 기타 생활비를 충당해 나갔다. 최태윤 교수가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졸업 2년 전쯤으로, 이후 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년 동안 최 교수가 A씨에게 지원한 금액만 약 1000만원.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웠던 A씨는 최 교수의 도움으로 어엿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 # 사례 2

B씨는 의대 졸업 후 치른 의사국가고시에서 3번이나 낙방했던 경험이 있다. 학창시절부터 성적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수차례 유급을 경험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그때마다 B씨를 따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그를 다독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하게 혼을 내기도 했다. 연이은 실패에 좌절했던 B씨는 최 교수의 설득에 지난해 다시 한 번 국가고시에 도전하기로 결심, 마침내 당당히 의사 면허를 획득하게 됐다. 믿음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의 2인3각이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 순천향 의대의 아버지

위 사례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태운 교수가 책임졌던 학생들의 실제 이야기다. 순천향 의대 제1회 졸업생인 최 교수는 올해 1월 의대 학장에 취임, 향후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순천향 의료인의 요람을 책임지게 됐다.

30여 년 동안 서울병원과 의대를 오가며 요직을 두루 거쳐 온 최 교수 '준비된 학장'으로 평가받아왔다.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쌓은 두터운 유대감과 신뢰가 강점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학교라는 조직은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순천향 의대의 경우 학생을 '인간사랑'의 건학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의사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학장 취임 전,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임상의학부장과 부학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순천향 의대 졸업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해왔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각종 미흡한 점을 보완해온 최 교수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최 교수는 "의대 수업은 중·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까닭에 자칫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학생들에게 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철학은 '학생사랑과 소통'이다. 아무리 좋은 교수와 교재가 있어도 정작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까닭이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반복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곤 한다. 이외에도 최 교수는 식사와 술자리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 '유니크한 순천향 의대'의 토대 다질 것

새롭게 의대 학장으로 취임한 최 교수는 대대적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꾸준히 순천향 의대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이원화 행정업무체계의 보완책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학장단 회의 개최 및 의학교육체계 개편, 체계적인 의대인증평가 준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철칙에 따라 의료인문학 강의 확대와 지속적인 워크숍·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 및 의료진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 의대 수업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학생들에게 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유급률이 낮고 국시합격률이 높은 의대, 유니크한 의료인문학 강의, 돈독한 선후배 관계, 애정 깊은 사제시간 등 유니크한 순천향의대의 전통을 추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장 취임 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지 어느새 3개월이 흘렀다. 아직은 학장이란 직함이 어색하다며 부득불 교수로 호칭해달라는 털털한 웃음에서 그의 소탈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 SCH

# SCH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 2015년도 동창회 활동 결산, '순의대상' 시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이영홍)는 3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5년 동창회 활동보고와 결산 및 예산안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기존의 '자랑스런 순천향인상'을 대신한 '순의대상' 선정 규정 보고 및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게 된 '순의대상'의 수상자는 송호연(4회) 천안병원 미생물학과 교수, 학술상에는 김현건(16회)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 장선영(22)부천병원 안과 조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안건으로 동창회 법인화 추진사업과 올해 9월에 개최될 '2016 흠커데이'와 관련한 토론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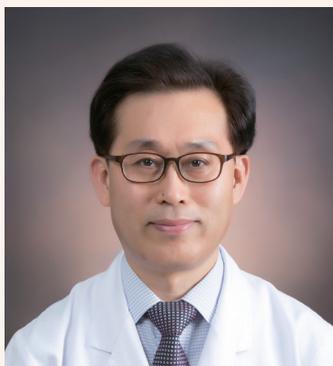


학술상 수상자 김현건(16회)

'순의대상' 수상자 송호연(4회)



학술상 수상자 장선영(22)



### 양거승 동문, 삼육서울병원 부원장 임명

삼육서울병원(병원장 최명섭)은 2월 2일(화) 오후 5시, 2016년도 첫 번째 운영위원회(의장 황춘광)를 열고 산부인과 양거승 과장(현 진료부장)을 부원장으로 선임하고 임명(2월 1일부)을 결의했다. 신임 양거승 부원장은 1961년 2월생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본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본원 산부인과 과장(1992년~2000년 2월, 2006년부터 현재)과 과부장(2007년)을 거쳐 진료부장 및 약무위원장(2014년부터 현재)을 겸직해왔다.



글 박태균  
식품의약칼럼니스트



## 건강의 적 '미세먼지' 막아주는 해결사

물, 허브차, 과일·채소  
충분히 섭취해야



보통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온다. 그래서 황사주의보나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는데, 그때마다 헛갈리면서 어차피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실상 같은 게 아닌가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는 엄연히 다르다. 황사는 보통 중국 몽골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자연현상이다.

통상 황사의 수준이 심하거나 연기와 안개의 합성어인 스모그가 심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가게 된다. 중국 쪽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똑같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훨씬 몸에 해롭다. 미세 먼지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10 $\mu$ m 이하 크기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라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50~70 $\mu$ m니까 머리카락보다 7분의 1 이하의 크기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한다. 물론 심한 경우지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뭇이나 대기가 건조한 봄에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덩달아 병원부터 바빠지기 시작한다. 호흡기내과(목 통증·호흡곤란·천식 악화·감기), 알레르기내과(알레르기성 비염), 안과(결막염·안구건조증), 피부과(접촉성 피부염·피부건조증)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미세먼지는 건강의 적이다. 미세먼지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 가지 키워드는 마스크·물·항산화 성분이다.

미세먼지가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상태이면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그러나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사 방지용'으로 인정한 마스크라도 초(超)미세먼지의 80%가량을 걸러낼 뿐 20%는 체내로 유입된다. 게다가 호흡기·심장병 환자가 마스크를 쓰면 숨 쉬기가 힘들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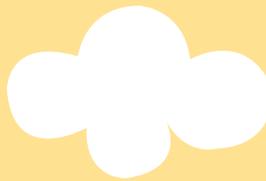
미세먼지가 우려되면 매일 8~10잔의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호흡기 점막이 말라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몸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다. 평소에 물 마시는 훈련이 돼 있지 않다면 오미자차·결명자차 등 허브차를 따끈하게 끓여 수시로 마시는 것이 대안이다. 커피·콜라 등 카페인 함유된 음료의 섭취는 자제한다. 카페인의 이뇨(利尿) 효과로 인해 기관지가 마른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채소를 챙겨 먹는 것도 유익하다. 미세먼지가 폐에 산화적 스트레스(활성 산소)를 가해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 야외 경기 관람은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귀가 뒤에 칫솔질, 손·얼굴 씻기, 보습제 바르기 등을 게을리하면 전체적으로 밀지는 '장사'다. 



# “우리 아빠가 최고수? 나랑 바둑 두면 맨날 지는데...”



이세돌 9단 부인과 딸이 전하는 ‘딸바보 갓세돌’ 가족 이야기



“아빠랑 바둑 두면 제가 늘 이겨요.”

‘딸 바보’ 이세돌 9단(33)은 딸 혜림 양(10)과 가끔 바둑을 둔다.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 9단이다. 하지만 상대의 돌을 포위하는 단수 정도만 아는 초급자 딸 앞에선 늘 ‘순한 양이 돼 백전백패다. 이번 알파고와 대결하는 동안 이 9단은 대기실 등에서 딸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됐다.

16일 이 9단은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국이 끝난 뒤 부인, 딸과 함께 휴식차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날 늦은 밤 인터뷰에서 이 9단은 “제가 나름대로 ‘강심장’을 가졌다고 여겼는데 기계와의 대결에서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욕심을 부린 것이 패인이 됐다”며 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체중이 7kg이나 빠질 정도로 ‘격전’을 치렀지만 “한 달 정도 뒤에 마음을 추스르고 둔다면 5번기에서 최소 2승을 거둘 수 있다”며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다.

17일 오전 기지는 전날에 이어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숙소인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이 9단 대신 아침식사를 하러 나온 동갑내기 부인 김현진 씨와 딸을 먼저 만났다. 김 씨는 친절하게도 “늦잠 자는 남편이 어차피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못 먹으니까 같이 먹자”고 했다.

이 9단은 혜림 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 현진 씨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기러기 아빠가 됐다.

“남편요? 모든 인생 계획의 출발점은 딸이죠. 딸의 인생을 위해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바둑 두듯 ‘삶의 행마(行馬)’를 합니다. 유학도 남편이 제안했어요.” 부인과 딸이 캐나다에 있을 때 이 9단은 한국 바둑계를 떠나 미국에서 바둑 보급 활동을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당시 국내 바둑 1인자였지만 그에겐 딸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다. 이 9단은 한때는 바둑 경기 때문에 자주 중국을 가는 점을 고려해 학교를 서울과 가까운

“가족은 나의 힘” 제주 휴가중 찰칵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국을 마친 뒤 17일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세돌 9단과 딸 헤림 양, 부인 김현진 씨(왼쪽부터). ‘딸 바보’로 유명한 이 9단은 “알파고와 대결할 때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공기가 나빠 아이에게 좋지 않라며 계획을 접었다.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제주국제학교(KIS)에 보내지는 것이었다. 알파고와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주도를 찾은 것도 헤림 양의 입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아빠가 시간이 없어 못 놀아줄 때가 많은데요. 한번 놀아 주면 굉장히 재미있게 놀아줘요.”(헤림 양)

아빠가 딸 바보라면 딸 헤림 양도 아빠 바보. 헤림 양의 눈에는 알파고와의 대결이 어떻게 비쳤을까. “아빠가 수읽기 하려고 눈빛이 진지해질 때가 최고로 멋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수를 놓고 자책하는 모습은 보기 싫었어요.” 헤림 양은 그때를 떠올렸는지 시무룩해졌다가 다시 밝게 웃는다.

김 씨는 “(남편이) 알파고에게 지고 분명 낙담했을 텐데도 저나 애 앞에선 감정 표현을 안 한다”며 “제가 바둑을 몰라 뭐라고 얘기해 주지도 못해 더욱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씨는 친한 기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호텔 방으로 오도록 했다. 그나마 이 9단이 동료들과 바둑 얘기를 하면 기분이 풀릴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9단은 2국이 끝난 뒤에는 박정상 홍민표 9단, 이다혜 4단, 한혜원 3단 등과 함께 밤새 바둑 연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김 씨는 특히 이 9단과 마찬가지로 5국 때가 제일 안타까웠다고 했다. 남편이 마지막 대국을 지고 기자회견장에서 밝게 웃었지만 방에서는 좋은 바둑을 놓친 것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고 자책했다는 것이다.

김 씨가 “5국을 졌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느냐”고 달랬지만 승부사 이 9단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속상했는데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9단의 형 이상훈 9단) 등 일행과 술을 먹고 새벽 1시쯤 들어와서는 ‘컵라면 하나 끓여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잖아요. 얼른 호텔 앞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왔어요.”

이날 오후 제주국제학교에서 상담하고 호텔로 돌아온 이 9단을 다시 만났다. 그는 알파고와의 대결 내내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고 했다.

“3국까지 내리 졌을 때 가족이 없었으면 이번 대결에서 졌다는 괴로움을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더 추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4국 승리도 없었을 겁니다. 가족 앞에서 가장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저 자신을 추스른 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바다 내음과 솔숲의 향이 어우러진 길,

# ‘대부해솔길’



올해의 걷기 테마는 ‘해안길’로 정했다. 전국의 바다와 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찾아보고 싶어서다. 첫 코스로 택한 곳은 경기도 대부도 섬에 만들어진 ‘대부해솔길’이다. 시화방조제와 탄도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육지가 되어버린 대부도의 섬 주변을 따라 걸으며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특히 낙조전망대에서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7개의 코스로 총 길이 74km의 대부해솔길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월 좋은 걷기여행길’로 선정되었다.

### 소나무 오솔길과 푸른 바다소리길의 환상적 만남

구봉도를 한 바퀴 둘러보는 1코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솔숲 속의 산길과 파도치는 해안길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다. 숲길의 시작점인 구봉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나지막한 언덕을 천천히 오른다. 나무 사이로 멀리 시화호 전경이 보이면서 가슴이 확 트인다. 길가에 가득 조각상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지나는 사람들을 반겨 맞아준다. 능선길을 지나 해안가에 있는 구봉약수터로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가 본다. 하얀 조개껍데기로 만들어진 해안가에 부서지는 파도의 노랫소리에 아이들이 신나 있다. 거북이의 입에서 나오는 약수로 목을 축이고 낙조전망대로 향한다.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꼬깔섬으로 넘어가는 개미허리 아치교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온다. 만조 시에 물이 차면 마치 개미허리처럼 가늘게 보여 붙여진 재미난 이름이다. 다리를 건너 조그만 섬을 가로지르니 바다로 향하는 나무데크가 길게 뻗어 있다. 나무데크의 끝이 바로 이곳의 명소인 낙조전망대이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사람들이 전망대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아름다운 낙조는 북망산 전망대에서 보기로 하고 추위를 이겨 보기 위해 바삐 걸어본다.



바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해안길로 내려오니 꼬끼리 열차가 사람들을 기다린다.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다정스럽다. 멀리 선재교가 보이는 지점에 두 바위가 서로 마주 보며 서 있다. 사이좋은 할매 할아버지 바위로 오래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던 선돌이다. 늙었누 옛 넘어가는 해님의 모습과 어우러져 더욱 정겹게 보인다. 종현어촌체험마을에 다다르니 아이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며 신기해한다. 마치 훈련된 새들처럼 잘도 받아먹어 아이들 옆에서 지켜보던 어른들의 눈도 휘둥그레진다.

### 붉은 노을에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북망산 전망대

마을을 지나서 북망산으로 향하는 길 옆 바닷가에 외로운 소나무가 나에게 손짓을 한다. 미인송이라는 이름처럼 예쁜 자태를 자랑하며 당당히 홀로 서 있다. 멀리 푸른 바다 너머로는 송도 신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이 바라다 보인다. 솔솔 속의 캠핑장에서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저녁 짓기가 한창이다. 해솔길의 리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니 구봉도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낸다.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오르니 멀리 시화호와 송도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몸이 날아갈 듯한 세찬 바람을 헤쳐 가며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다. 사방이 확 트인 정상의 풍광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영흥도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송전탑들과 섬들이 어우러진 낙조의 장면이 정말 절경이다.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시시각각 사진에 담다보니 추위는 어느새 물러났다. 해안가의 낙조전망대에서 보는 낙조와는 또 다른 맛이다.

어느덧 주변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감지하고 더 늦기 전에 하산 길을 재촉해본다. 마을길을 따라 걷다보니 포도 농장의 포도나무들이 쓸쓸히 가지만 남아서 늘어서 있다. 마치 대부포도의 새콤달콤한 포도 향이 풍기는 듯 입안 가득히 침이 고인다. 아마도 늦어진 저녁 시간에 시장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다. 최종 목적지인 대부관광안내소까지 4시간여의 오늘 일정을 마감한다. 



### 건강 TIP

건강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 내 염분 농도가 오르면 혈액으로 물을 끌어와 혈액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혈관이 수축되어 말초 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져 결국 혈압이 상승한다. 염분 섭취를 줄여주면 혈압은 감소한다.



## 순 천 향 대 학 교

### 서교일 총장, '노벨상 꿈 실현하는 주인공' 특강



“우리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이 새내기를 위한 특별한 만남을 진행해 신입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서교일 총장은 2530명의 새내기과 학부모, 재학생 등 4000여명이 참석한 신입생 입학식에서

‘지방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노벨상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 총장은 15분가량 진행된 특강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다질 것’과 ‘미래 노벨상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것’을 주문했다. 후드 티와 청바지로 입학식장 무대에 깜짝 등장한 서 총장은 과거 딱딱한 축사를 던지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가능성,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 2341명에게 학위 수여,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지난 18일 단과대학별로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184명, 석사 140명, 박사 17명 등 모두 234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주산주공(晝產週功)’ 즉 주중에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주말에 공부하며 학사과정을 마친 졸업자 6명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공 과정을 마친

12명의 문학과 행정전문학사 등에게 각각 졸업장이 주어졌다.

서교일 총장은 “순천향대의 설립자이자 위대한 선각자이셨던 향설 서석조 박사는 삶과 배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사랑’이라고 가르쳤다”며 “향설 박사의 학문적 성과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인간사랑’의 인재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향설의 제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 더 크게 발전시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해외봉사단 베트남에서 사랑의 구슬땀

순천향대 해외봉사단(단장 이상욱)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사랑의 구슬땀을 흘리고 귀국했다. 학생들과 지도교수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건너서 일대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봉사활동은 ▲다문화 행복나눔 멘토링 ▲현지 건대대학과의 학생 간 포럼 ▲건대시 장애인봉사활동 ▲아산지역 베트남가족 방문 및 공연봉사 ▲고아원 방문과 물품기증 등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졌다.

### 순천향대, 중기청 산학융합 연구마을 2단계로 진입

순천향대가 중기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 내 연구마을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로 진입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2013년 7월 충청권 대학 중 유일하게 중기기업청이 지원하는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의약바이오, 뉴IT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교내 공과대학에 입주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제를 수행해왔다.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2017년 11월 말까지 2년간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2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 순 천 향 대 학 교 중 앙 의 료 원

### 칭다오 국제경제협력구에 ‘순천향사무소’ 설치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원 투자자 설명회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황경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월 12일 중국 칭다오(Qingdao, 靑島) 국제경제협력구 중한무역혁신관에서 ‘순천향 사무소’ 현판식을 갖고 현지 투자자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닦을 올렸다.

현판식에는 순천향의료원을 대표해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과 유병욱 순천향대 국제교류처장이 참석했고, 칭다오 국제협력구에서는 조소욱 국제경제협력구 관리위원회 주임과 포진우 한국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 설명회는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에게 중한혁신산업단지 내에 80~100베드 규모의 최고급 시설을 갖춘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제안했다. 향후에는 산후조리원을 기반으로 모자(母子)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키고, 최고급 호텔까지 건립한다는 비전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 순천향,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 공향경제시범구와 협약 종합병원 건립 등 건강의료분야 컨설팅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료원장 황경호)은 지난 2월 22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 공향경제시범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의료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허페이시 공향경제시범구의 종합병원 건립 컨설팅을 비롯해 건강검진과 의료정보 시스템, 의료설비 컨설팅, 의료인 초청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게 되었다.

허페이시 공향경제시범구에서는 의료정책 및 의약 정책 비준과 의사자격증, 의료설비, 기자재설비 등록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두 기관은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건강 의료 분야의 정책 개발과 발전 상황, 투자 동향 등의 최신 소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순 천 향 대 학 교 서 울 병 원

### [신간] 의료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을 상식 이진희 순천향대서울병원 법무 담당 '사건 판례' 발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원무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이진희씨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률 상식'을 책으로 출판했다.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한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대표 변호사)가 감수를 도왔다.

총 177페이지의 '의료법률 상식'은 진료, 행정, 의료분쟁, 최신 판례 등 4부분으로 나눠 분야별 세부 내용을 수록했다. 진료 부분에서는 진료과정, 의사처방, 응급의료 상황, 진료거부, 의료문서, 비밀유지 의무, 연명치료와 같이 의료인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순천향대서울병원 '사랑의 헌혈행사'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서유성 병원장)은 최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병원 내에서 혈액 수급을 직접 담당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진단검사학과와 혈액은행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 '갑상선이 아픈 아이들' 환우회 개최

이동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1월 27일 병원 내 동은대강당에서 인터넷 카페 '갑상선이 아픈 아이들' (<http://cafe.daum.net/ksailom>)과 공동으로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환우회 모임을 개최했다.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경남, 충청 지역 등 전국에서 1백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석했다. 이동환 교수는 1991년부터 신생아대사이상 검사를 국내에 처음 도입해, 1997년부터는 모든 신생아에게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다. 매년 100명 이상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10명 이상의 페닐케톤뇨증 아동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 순천향기독신우회 네팔 의료 선교 봉사 환자 진료, 밥퍼 봉사, 시설 지원 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기독신우회(회장 김경민)는 2월 5일부터 13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외곽 빈민촌 지역에서 의료선

교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설 연휴를 이용한 봉사활동에는 김경민 회장(의료정보팀)을 비롯해 이동환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성진 안과 교수, 박병원 심장내과 교수 등 14명이 참여해 환자 진료와 급식 봉사, 안경 기부, 백내장센터 건립 등을 논의했다. 급식 봉사는 최일도 목사의 사역을 도와 매일 아침 450명의 어린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나눠주는 일을 도왔다. 또한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 800여명에게 내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약도 제공했다.

### 소화기병센터 복부초음파, 내시경초음파 기법전수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센터장 조영덕)는 5일 원내 동은대강당과 복부초음파실, 내시경실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 진단 워크숍을 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이론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는 2개 세션과 실제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2개의 라이브 시연으로 구성해 봉직의 및 개원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 초음파 시연의 좌장은 이준성(순천향의대), 김홍수(순천향의대), 김진오(순천향의대), 조영덕(순천향의대) 교수가, 비디오 퀴즈의 토의는 차상우(순천향의대), 장재영(순천향의대) 교수가 진행했다.

### 용산노인복지관에 쌀 540kg 전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1월 22일 향설교육관에서 서울시립용산노인복지관(관장 이성희)에 쌀 54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지난해 1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의무부 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 취임식 축하를 위해 각지에서 보내준 정성을 모은 것이다.

## 순 천 향 대 학 교 부 천 병 원

### 폐질환 치료 잘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 관련 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폐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01년 '폐 및 호흡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로 지정된 이래, 2003년 천식 발생 유전자 세계 최초 규명, 2007년 천식 유전자 변이 세계 최초 발견, 2015년 천식 치료의 새 방법을 제시할 '클라우드 파이브(세포장벽)' 역할 세계 최초 규명 등, 폐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졸중 치료역량 강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가 초저선량 3차원 입체뇌혈관조영기 가동, 뇌졸중 전문 치료실 개소 등 뇌졸중 전문 치료역량을 강화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졸중치료센터는 최근 뇌혈관조영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화질의 3차원 입체 영상 획득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뇌혈관 내 수술 시 고난이도 시술과 수술이 가능하며, 방사선 피폭양이 기존 장비 대비 4분의 1에 불과해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또, 뇌졸중 전문 치료실을 개소했다.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활력 증후 등을 24시간 집중 관찰하는 4개의 모니터링 병상과 전담 간호 인력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울병원 동정

**이동환 교수,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 초대 회장**  
이동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창립한 대한신생아스크리닝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동환 교수는 우리나라 소아유전질환 치료의 선구자라 알려져 있다.

**조세영 전공의, 대한말초신경학회 학술상**  
조세영 신경외과 전공의 3년 차가 1월 31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말초신경학회 학술대회에서 'Korean Cadaveric Morphometric Study of the Spinal Accessory Nerve Around Posterior Cervical Triangle'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학술상을 받았다.

**감염관리팀, 복지부 장관 표창**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와 감염관리팀 정연수 간호사가 메르스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감시사업에 적극 참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부천병원 동정

**이영구 교수(정형외과)**  
16.01.20~22 스위스 Basel Orthopedics에서 구연 발표

**김영석 교수(소화기내과)**  
16.01.20~23 태국 APLD 2016에서 포스터 발표

**문중호 교수(소화기내과)**  
16.01.22~24 인도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구연 발표

**박재성 교수(영상의학과)**  
16.01.29~31 일본 아시아메카기능영상학회에서 좌장

**백상현 교수(영상의학과)**  
16.01.28~31 일본 아시아메카기능영상학회에서 구연 발표

**유창범 교수(소화기내과)**  
16.02.17~19 미국 13th Annual Rocky Mountain International Endoscopy Course 학회 강연

**신호성 교수(성형외과)**  
16.02.24~26 영국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tic Surgery에서 포스터 발표

**김진국 교수(신장내과)**  
16.02.27~03.01 호주 ISPD에서 포스터 발표

**문중호 교수(소화기내과)**  
16.02.28 대만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구연 발표

# NEWS

## 순천향대 부천병원,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위암 1차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4년 7~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위암수술을 시행한 201개 기관을 평가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총 15개 평가 지표 중, 14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암 환자에 대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접수부터 검사·치료·퇴원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중증환자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순천향대 중양의료원 제8회 QI 경진대회, 부천병원팀 대상 수상

2월 12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QI 경진대회'에서 '원상 물류시스템'을 발표한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관리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는 순천향대 중양의료원 산하 서울·부천·천안·구미 4개 병원이 지난 1년간 진행한 의료 질 향상(Q, 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다. 경진대회는 각 병원에서 2개 팀씩 8개 팀과 지난 대회 대상팀 등, 총 9개 팀이 다양한 주제로 구연 발표를 진행했다.

## 제6회 순천향 한마음 대회 성료



2월 20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의홀에서 '제6회 순천향 한마음대회'가 열려 성료했다. 순천향 한마음대회는 순천향대 및 4개 부속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병원)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운영성과 및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날 서교일 총장, 학교법인 동은학원 김부성 이사장, 순천향대 황경호 중양의료원장, 서유성 서울병

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속적 특성화를 통한 신성장 분야 발굴(순천향대) △가치관 경영을 통해 미래를 조망하다(서울병원), △2016년 제2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부천병원) 등 각 기관별 발표가 진행됐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 미안마 의술 발전 견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한국의 선진 의술을 미안마 의사들에게 전수해 미안마 의술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힘을 보탠다. 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주식회사 처음, 미안마 양곤 국립의과대학은 미안마 의사 초청연수 3자 협약을 체결했다. 미안마 양곤 국립의과대학은 협력병원이 7개 이상일 정도로 양곤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이다. 본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주식회사 처음은 미안마 의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부천병원에서 1년간 연수를 시행하고, 숙소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극희귀 질환 진단기관 선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극희귀질환 진단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총 14개 상급종합병원만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포함해 단 두 곳이다. 3월부터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정부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영림 교수,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 소화기내과 김상균 교수, 피부과 박영림 교수, 신경과 박정호 교수가 희귀질환자를 전문 진료하며,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44개가 적용된다.

## 순 천 향 대 학 교 천 안 병 원

### 고객만족 넘어 고객감동 주는 병원 만든다

천안병원은 1월 11일 고객감동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문수 병원장과 교직원들은 2010년부터 고객만족을 위해 실시해온 '고객만족프로젝트'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6년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객감동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고객감동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객감동프로젝트의 슬로건은 '고객과 동행하는 순천향은 사랑입니다'로 정했다. 충만한 사랑, 진심을 담은 감사, 따뜻한 배려를 통해 고객과 동행하고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객감동 실천 선언문도 새로 제작했다. 선언문은 교직원들이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낭독을 통해 고객감동 실천을 다짐하는 의식에 사용된다.

### 대장암센터, 제11회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 개최



천안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백무준)가 대장암 수술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돕기 위해 매년 봄 개최하는 오감만족 건강강좌,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가 지난 2월 19일 열렸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은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는 병원 교육관 2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

으며 100여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시청각 강연을 통해 최신 의학정보들이 제공됐으며, 맛갈스런 식단전시회 및 시식회와 함께 전문 음악인들의 흥겨운 위문공연도 곁들여졌다.

### 고객감동 위해 CS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천안병원은 1월 8일과 9일 양일간 천안북부상공회의소 6층 강당에서 원내 CS(고객감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2차 아카데미는 전문성 심화교육으로, 병원이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지난해 선발 양성한 원내 CS전문가 17명이 참석했다. 외부 CS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스피치 노하우 ▲스토리텔링 기법 ▲고객대 5STEP ▲대면응대 프로세스 ▲전화응대 ▲상황별 실전고객 응대스킬 ▲환자경험관리/의료서비스 디자인 적용 ▲의료커뮤니케이션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 응급의료센터, 복지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 받아

천안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매우 효율적인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특히 메

르스사태 이후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중증응급 환자들의 긴 재실시간 측면에서도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효율적이고 쾌적한 응급실은 그동안 최적의 치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전국 최초로 소아전용 응급실을 개설해 각광받았고, 경증응급환자 신속진료실 운영으로 혼잡을 줄였다. 또 응급실 내에 최고성능의 CT와 최첨단 전자동화 혈액검사시스템도 구축해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했다.

**위암센터, 적정성평가 3회 연속 최고등급 획득**  
천안병원 위암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위암수술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위암센터는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3회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역시 3회 연속 0%를 기록했다. 특히 위암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3회 연

속 0%는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드문 성적으로 매우 우수한 위암 치료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진료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 수행병원 선정**  
천안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진료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의 수행병원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1, 2차 병원과 3차 대학병원 간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지역 의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 환자들의 서울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몰래 불우환자 도운 교직원들 선행 화제**  
천안병원 교직원들의 선행은 2012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015년도에도 교직원들은 5천만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으며, 기금은 총 51명의 환자 의료비로 사용됐다. 기금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507명의 교직원이 기금 조성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순 천 향 대 학 교 구 미 병 원**

**폐렴 진료 우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1등급**  
구미병원이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인 1등급을 획득했다.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과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 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항생제 투여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7개 항목이 평가된 가운데 구미병원은 총점 98.3점을 받았다.

**33명 간호사, 입문 교육 후 현장 투입**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나흘간 신규 간호사 입문 교육이 향설교육관에서 실시됐다. 교육을 받은 신규 간호사들은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2월 22일부터 병원 현장에 투입되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201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구미병원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수건강검진은 유기용제나 중금속, 소음과 같은 산업 안전보건법상 179종의 유해위험 요소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진단으로 구미병원은 분석능력, 판정신뢰도 시설·장비 성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S등급’으로 전국 상위 15%에 포함됐다.

**뇌혈관 심포지엄 성료**  
신경외과 주관으로 2월 26일 뇌혈관 심포지엄이 구미BS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역 의료인과 구급대원 100여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이번 심포지엄은 ‘혈관조영기를 이용한 심장말초 혈관의 혈관 내 치료 및 뇌동맥류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에 대한 연재가 발표됐다.

**의료기관 인증! 선포식 가져**  
구미병원은 2월 1일 향설교육관에서 ‘의료기관 인증 선포식’을 열고 인증 기관 준비를 통하여 ‘최고의 순천향, 환자중심 순천향, 안전한 순천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2월 첫째 주, 의료원 인증단의 자체 평가가 이뤄졌고 23일부터 나흘간 인증원의 컨설팅이 실시됐다.



**SU-Ⅲ(통합의료정보시스템) 오픈 성공 보고 대회**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가동을 축하하는 행사가 2월 26일 구미병원 향설교육관에서 열렸다. 양승부 추진원장 위 2명이 황경호 의료원장이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았으며 안정적인 가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5명에게 병원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천안병원 동정**

**이경석 교수(신경외과)**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맨 민원 부문 국민포장 수상’

**김영항 교수(소아청소년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취임

**신임교원**  
외과 이현용 교수  
신장내과 박삼열 교수  
소화기내과 한지수, 문혁진, 양재국 교수  
응급의학과 최재형, 이명재, 정해령 교수  
핵의학과 권현우 교수  
영상의학과 김승수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김보현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권순찬 교수  
병리과 홍순영 교수  
건강증진센터 김루미, 김정규 교수

**퇴직 교원**  
내분비내과 류아정 교수  
소화기내과 여성영, 이승호, 은준영, 전백규 교수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  
외과 박세준 교수  
응급의학과 김기환, 김명기 교수  
정형외과 유승만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송후림 교수  
영상의학과 황정아 교수  
병리과 김경주 교수  
건강증진센터 심승숙 교수



**구미병원 동정**

**황성일 교수(재활의학과)**  
구미시노인복지관 총탁의 위촉(2016년 1년간)

**이현옥 교수(심장내과)**  
01.15 중국 상하이에서 혈관 내 심초음파 교육

**안지훈 교수(심장내과)**  
02.22~25 미국 워싱턴 CRT 2016 발표

**변진수 교수(심장내과)**  
02.29~3.02 일본 미야자키 MUS, ROTA 교육

**김원중 교수(소화기내과)**  
03.16~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IBD(크론학회) 2016 포스터 발표

**병원장 감사패 수여**  
경북보건대학교 이은석 총장이 박래경 병원장에게 신학협력가족회사 패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신임교원**  
이비인후과 조현포  
응급의학과 김기환 추가



Human Respect

Credibility

Spirit of Trust

의약품 산업의 최고를 지향 하는  
(주) 기영약품

**강남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3번지 메디칸빌딩  
Tel 02) 3445-2333(代) Fax 02) 3442-7690  
[http: www.medican.co.kr](http://www.medican.co.kr)

**강북 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33-1. 비츠로빌딩 별관1층  
Tel 02)3446-0513 Fax 02) 3446-3115

**대전 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00-20. 지하1층  
Tel 042) 253-0045(代) Fax 042) 253-3890